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2호 HYUNBULNEWS.COM 2026년 6월 17일(음력 5월 3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차별금지·과거사 '진전' 문화유산 전승 '과제多'

이재명 정부 1년, 불교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불교계가 제안했던 주요 정책 과제들이 국정 운영 과정에 반영되며 하나둘 현실화되고 있다. 혐오·차별 대응 체계 구축과 과거사 진상 규명, 종교계를 통한 남북교류 복원 등은 일부 진전을 보인 반면, 전통사찰 보존과 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협의 단계에 머물러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최근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통해 주요 정책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사회통합과 차별 해소, 남북교류 활성화, 전통문화 진흥 등을 담은 정책 제안 자료집을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혐오 · 차별 대응 체계 강화

불교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일부 진전을 보였다. 불교계는 평등사상에 기반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오체투지와 기도회 등 사회적 실천을 통해 사회 각계 소수자들이 설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해왔다.

정부도 혐오·차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올해 2월 혐오표현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혐오차별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이후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포럼과 국회의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 토론회('혐오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토론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제도 정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해외 혐오표현 대응 사례와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협업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현재 평등법(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발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법 시행 사례 및 영향에 대한 실태 조사도 병행하며, 향후 입법 기반 마련을 위한 토대를 닦고 있다.

과거사 진상규명 · 명예회복 '진전'

불교계가 제안한 과거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불교계는 여수·순천 10·19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희생자 범위가 사람에 한정돼 있어 당시 피해를 입은 사찰과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보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이에 정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추가 신고를 접수해 진상규명 2419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995건을 새롭게 접수했다.

조사 활동 기간도 올해 10월 5일까지 1년 연장했으며, 현재까지 희생자 3316명과 유족 1만2508명에 대한 인정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후속 조사에 집중하는 한편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유족들에 대한 인정 절차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도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올해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공동 유전자 감정 추진에 합의했다.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 탄광에서 발생한 사고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관음종은 2016년부터 한·일 합동 위령재와 유해 발굴 지원 활동을 이어오며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새기는 회)' 및 유족회와 협력해 진상규명에 힘써왔다. 특히 수중 탐사와 갱구 개방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유해 발굴의 기반을 마련했고, 그 결과 2025년 8월 사고 발생 83년 만에 첫 희생자 유해가 발견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유해 발견 이후 열린 제84주기 현지 추도식에 참석해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유해 발굴에 기여한 '새기는 회'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한·일 양국이 DNA 감정 절차 추진에 합의하면서 희생자 신원 확인과 유해 봉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미해결된 주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며 국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면에 계속



태고종은 6월 10일 선암사에서 '불기 2570년 전국 승려 · 전법사(교임) 연수교육 및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했다. 선암사를 중심으로 한 종단 정체성과 한국불교 전통 법맥 계승 의지를 대내외로 천명한 이날 자리에는 전국 종도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태고종 승려대회…"태고 법맥 계승" 천명

6월 10일, 순천 선암사서 봉행
전국 종도 1000명 동참해 '성황'
정체성 재확인 "수행 · 전법 매진"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하고 종단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태고종은 6월 10일 선암사에서 '불기 2570년 전국 승려·전법사(교임) 연수교육 및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고 선암사를 중심으로 한 종단 정체성과 한국불교 전통 법맥 계승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종정 운경 대종사의 증명으로 봉행된 이날 승려대회에는 전국에서 종도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승려대회는 태고종이 지난 5월, 기관장·교구종무원장 회의를 통해 결의한 행사로, 선암사를 태고종의 상징적 도량이자 한국불교 전통 법맥의 중심도량으로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태고종은 선언문에서 "태고총림 선암사는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지켜온 수행도량이자 한국불교태고종의 법맥과 종통이 살아 숨 쉬는 총본산"이라며 "오랜 법난과 갈등 속에서도 사법부의 판단과 역사적 검증을 통해 선암사의 정체성과 법통의 실체가 한국불교태고종에 있음을 천하에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선암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청정도량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한다"며 "달라진 종단의 위상을 바탕으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선언문에서는 세 가지 실천 과제도 제시됐다. 먼저 "한국불교의 종조인 태고보우 국사의 법맥과 해동 율맥을 온전히 계승한 한국불교 정통종단 태고법손임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삼아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또 "확고해진 종단의 정통성과 위상을 바탕으로 종지종풍을 드높여 신앙하고 지속 가능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힘껏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불교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교화와 수행·전법에 매진하며 국민과 상생하는 대승교화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3면에 계속

순천 선암사=임은호 기자

위기 가정, 템플스테이로 치유한다

불교문화사업단 · 복지부 MOU

한국불교문화사업단(운영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가 템플스테이를 통한 위기 가정 치유에 나선다.

문화사업단과 복지부는 6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한 가족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보듬'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보듬과 치유를 위한 공동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활동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정보 교류 △사회 공익 및 양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진우 스님은 "신체적인 어려움을 돌보는 복지는 잘 이뤄지고 있지만 마음이 힘들 때 치유해주는 복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차원에서 마음 건강을 돌보는 복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을 저는 '마음 안보'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종단에서는 국민들의 '마음 안보'를 위해 선명상을 보급하고 있다. 선명상을 통해 국민들이 우울증,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10th 佛은 생명 敎는 생활 2016 - 2026

대행선연구원 창립 10주년

대행선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대행선과 한마음 사상을 연구하며
그 의미와 가치를 현대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불교계 교수 및 학자분들과 한마음선원 이사장스님, 주지스님,
각 지원장스님, 소임자 스님들과 대중스님, 신도회임원진 및 선원 사부대중
그리고 선원 바깥의 인연 닿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대행선연구원은 앞으로도 대행선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교육을 모색하며 연구와 실천의
지평을 넓혀가겠습니다.

지난 10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진화발전하는 대행선연구원이 되도록 가일층 정진하겠습니다.

2026년 6월
- 대행선연구원 일동 -

제10회 학술대회 안내

대주제 :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
일 시 : 2026년 6월 20일(토) 09:30~17:30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한마음선원 유튜브 생중계 *구체적 사항은 연구원 홈피 참조
문 의 : 대행선연구원 www.daehaeng.re.kr
031)470-3277 myogong@daehaeng.org



대행선 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폐기하라”

종교편향특위·범종교개혁시민연대
6월 10일 서울시의회서 기자회견
공공정책의 공정성 복원 등 촉구
폐기 염원 서한 전달 · 침묵 명상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와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6월 1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된 가운데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2건의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이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공적 지원을 담고 있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보화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와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6월 1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그간 종교편향특위와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해당 조례안이 “학교 운동장과 수련관 등 공공 교육시설을 행사 참가자 숙소로 활용하고, 시설 복구 비용까지 공공 재원으로 지원한다”며 공공자산의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과 공공정책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조례안 폐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례안은 폐기되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보화 스님과 탄보·상원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신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실천불교승가회, 조계사 신도회, 참여불교재가연대교단자정센터 등 불교계 단체와 정태윤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대표, 박광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운영위원 등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소속 종교·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종교편향특위는 ‘서울시의회는 특정 종교 편향 지원을 중단하고 종교 중립 의무를 다하라’는 성명을 통해 “국제행사라는 명목으로 예산과 행정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처사”라며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즉각 폐기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해체 △공공정책의 공정성 복원 등을 촉구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세계청년대회의 신앙적 가치를 존중하지만 그 가치가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의 세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며 비용추계 전 항목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종교계·교육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향후 종교 관련 조례에 대한 정교분리 영향 평가와 종교 간 형평성 검토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제11대 마지막 정례회를 진행한다. 해당 조례안이 이번 회기 내 본회의에 상정돼 부결될 경우 즉시 폐기되며,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되더라도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 자동 폐기된다. 다만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재발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어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화 스님은 “청년 교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만을 위한 제도화가 문제”라며 “향후에도 조례안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출범 이후 의장단과 만나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운영위원도 “종교 행사에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약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국민과 납세자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정치권 차원 논의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을 끝으로 참가자들은 서울시의회 민원실에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의회 앞에서 약 40분간 조례안 폐기를 염원하는 침묵 명상을 진행했다.

종교계·정부, 한반도 평화에 ‘최선’

1면에서 이어짐

종교계 통한 남북교류 ‘기대’

정부는 장기간 위축된 남북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종교계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통일부가 주관한 7대 종교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덕유 스님과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이사장 진철 스님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는 전국 하나센터(25곳)와 종교계 간 연계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하며 북향민 자립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북향민’ 명칭 사용을 통한 인식 개선에도 종교계의 동참도 요청했다.

정부는 남북 교류 단절 상황 속에서 종교계가 평화 담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정례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조계종은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북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북한 묘향산 보현사 탑등을 봉축등으로 구현했다. 4월 8일에는 강원 고성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화합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해 한반도 평화를 발원했다. 천태종도 나누며하나되기를 통해 하나원에 북한이탈주민 대상 템플라이프 프로그램 운영과 위문품 전달 등 10여 년간 인도적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통사찰 방재 대책 마련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고운사, 운람사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통사찰과 사찰림을 지키기 위한 소방·방재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도 커졌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3월, 산불 및 화재 대응을 위한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유산청과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불교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응 현황과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산불 대응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무 TF를 구성해 내년 예산 반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토안전부 등과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올해 5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사찰림 보호 및 산불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정비를 통해 사찰 주변 25m 이격공간을 확보하는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해 35개 사찰의 신청을 받았고, 현재 6곳은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사찰도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유산 보존 · 전승은 과제로

다만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은 시설 관리를 넘어 국가유산 보호와 문화 정체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통사찰보존지 지목 현실화’ 문제는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 많은 사찰이 실제 경내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 등으로 묶여 있어, 노후 전각을 개보수할 때마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는 관련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지자체의 소극적인 해석과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이후 사찰 방문객이 크게 늘었지만, 이에 따른 안전 관리·환경 정비 등 공공 서비스 부담은 여전히 개별 사찰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유산 보수 예산까지 축소되면서 국보·보물급 문화유산뿐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들의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 국공유지 대부료 납부 사찰에 대한 토지 불하 방안 마련 등이 여전히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과제로 남아 있다. 조계종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은호 · 김내영 기자

김상욱 당선인, 진우 스님 격려에 감사

6월 10일, 진우 스님 예방자리서
“대화와 타협으로 시정 이끌길”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선거 과정에서의 격려와 기도에 감사를 전하고, 당선 이후에도 하심의 자세와 수행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욱 당선인은 6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메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배우겠다는 낮은 자세로 만행하듯 선거운동을 했다”며 “기도해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큰 욕심 없이 진솔하게 울산 시민들에게 다가간 모습이 깊은 울림을 줬기 때문인 것 같다”고 격려했다.

스님은 그러면서 “비행기가 양쪽 날개로 균형 있게 날아가는 것처럼 서로 다른 입장의 장점을 조화롭게 살릴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시의회 등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정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그런 과정이 쌓이면 시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직할교구 포살법회…“포교·전법” 당부

6월 10일, 조계사 대웅전서
총 219명 ‘수행 정진’ 전념



불기 2570년 병오년 하안거 정진이 5월 31일 시작된 가운데, 조계종 직할교구가 제1차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6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하안거 첫 포살법회를 열었다. 이날 포살법회는 서울 및 수도권 사찰에서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조계종 직할교구 소속 스님들이 그간의 수행을 돌아보고 계율 준수를 점검하는 자리다.

포살 법사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보살계를 배우고 독송해야 한다며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봉독하고 계율 준수와 수행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소참 법문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며, 포교·전법과 수행 정진에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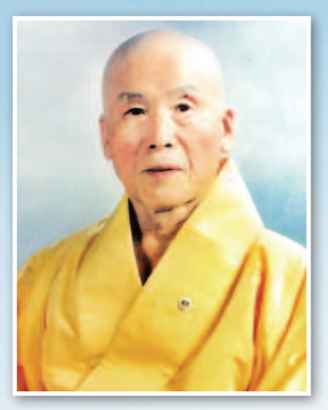
포살법회에 참석한 직할교구의 비구 스님 71명과 비구니 스님 148명 총 219명은 장궤합장 한 채 정진의 뜻을 되새겼다.

조계종은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에 따라 안거 기간 중 한 차례 이상 포살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현희 기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세계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제30주기 추모다례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시고 세계불교 초대법왕을 역임,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하시며 오직 불교 포교와 세계평화, 민족 평화통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일붕 서경보 존자의 제30주기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종도님들께서는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붕 서경보스님의 오도송
맑은 허공에 새털이 떨어지고
고기가 뛰니 수면에 물결이 인다.
새의 털 하나 떨어지지 않고 물살 일지 않는 곳에서
나는 한 가지의 꽃을 들고 법을 설하다.

일붕 서경보스님의 열반송
뱀이 화하여 용이 되어 뿔이 하나가 났는데
송담에는 풍우가 크게 일어 만인이 놀라네.
남쪽성에 새봄이 오니 마군이 기운 다 없어지고
북쪽령에 밤이 되니 선월이 밝아 온다.

일 시 : 불기2570(2026)년 6월 23일 화요일(음5월9일) 오전 11시
장 소 : 일붕선원 대법당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전 화 : (02)991-8175, 8904

세계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제30주기 추모봉행위원회

“선암사는 태고종 총림이자 중심축”

1면에서 이어짐

6월 10일 열린 승려대회서
“한국불교 적자 종단” 강조
정통종단 위상 높일 것 다짐
운경 스님 “100년 준비” 당부

순천 선암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6월 10일 선암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 태고종 종정 운경 스님은 선암사를 지켜낸 정신을 바탕으로 종단 발전과 미래 100년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대회사에서 선암사 문제 해결을 넘어 종단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오랜 굴레와 시련을 뒤로하고 한국불교 적자 종단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 앞에 서 있다”며 “종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불조의 혜명을 온전히 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님들의 수행과 정진, 즉 내실을 다지는 교육불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봉행되는 승려연수교육은 무명의 사바세계를 밝히는 지혜의 안목을 넓히고 종단이 지향해야 할 정법의 이정표를 공유하는 수행의 장”이라며 “부처님의 교법과 종단의 가풍을 새롭게 새겨 현대사회 속에서 대중과 소통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도의 원력을 더욱 견고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우리 종단은 해동 율맥의 유일한 전승지이자 수행의 종가”라며 “전통의 가사와 고유한 의례, 예법을 고수하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청정계율의 정통성을 묵묵히 사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의 법맥과 율맥을 단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완벽하게 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한국불교태고종이 한국불교의 적자 종단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선암사를 종단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종정 운경 스님은 법어에서 선암사 수호는 사찰 소유권 분쟁이 아니라 태고종의 정체성과 법통을 지켜낸 역사였음을 강조했다. 운경 스님은 선암사를 둘러싼 갈등 과정을 ‘법난’으로 규정했다. 이어 선암사 수호를 위해 전국 종도들이 현장을 지키고 법적 대응에 나섰던 과정을 언급하며 “오늘의 선암사는 수많은 종도들의 원력과 희생 위에 지켜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운경 스님은 승려대회 개최 배경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로 선암사가 한국불교태고종 사찰임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선암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승려대회는 종도들의 뜻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종권 수호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종단의 미래 과제로 개혁과 혁신을 제시했다. 운경 스님은 “종단이 법맥 계승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종단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교육 강화와 제도 개선, 종책 연구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단 의전 순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전했다. 스님은 “태고종은 한국불교 5대 종단 가운데 하나임에도 그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선암사 수호를 통해 확립한 종권을 바탕으로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종도 모두가 힘을 모아 종단 발전과 미래 100년을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원장 재홍 스님은 “역사의 변천 속에서 여러 계파와 법맥 흐름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으나 조선 후기 조선불교조계종을 이끌었던 청허계와 부휴계 양대 문파가 모두 태고보우국사를 한국불교의 종조로 공인하고 불조원류에 이르러 임제태고법통설이 확립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불교의 역사”라면서 “위대한 태고 종조의 종지종풍을 이 시대에 다시금 찬란하게 선양하자”고 당부했다.

승려대회 후에는 연수교육이 진행됐다.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이 강사로 나서 ‘한국불교 종조론 논쟁의 전모-종헌과 종조의 법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직 군승 묘역을 참배하며 호국원력을 되새겼다.

순직 군승 헌신 기리며 호국원력 되새겨

군종교구 6월 5일, 현충원 참배
법원 스님, 순국선열에 감사·위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직 군승 묘역을 참배하며 호국원력을 되새겼다.

이번 참배에는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을 비롯해 국방부 원광사 주지 성현 스님,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 주지 혜징 스님, 공군항공안전단 보라매법당 주지 여거 스님, 지상작전사령부 선봉사 주지 정행 스님, 국군고양병원 자견사 주지 세광 스님, 제1군단 일승사 주지 경진 스님, 제17보병사단 호국연주사 주지 명원 스님,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해원사 주지 덕명 스님 등이 함께했다.

스님들은 부처님 가르침 아래 호국정신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육군 고(故) 이동신 법사를 시작으로 육군 고(故) 김인수 법사, 육군 고(故) 김봉식 법사, 해군 고(故) 김수남 법사까지 4명의 군승 묘역을 찾아 헌화와 묵념, 반야심경 봉독을 통해 추모했다.

이날 법원 스님은 ‘먼저 걸어가신 호국·호법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는 추모의 글을 남기고, 각 묘역을 직접 닦는 등 순직 군승에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며 “호국영령 포함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모든 국가 유공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운 기자

화엄사 명초 스님, 아미타병원에 1억5천만원

호산 스님, 6월 10일 감사패 전달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 명초 스님이 평생 근검절약하며 모은 1억5000만원을 아미타불교요양병원(대표이사 호산 스님)에 기부했다. 호산 스님은 6월 10일 화엄사 이천당에서 명초 스님을 대신해 주지 우석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명초 스님의 원력과 자비행을 높이 기렸다.

명초 스님은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 입원한 스님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최근 1억5000만원을 지정 기부한 바 있다. 명초 스님이 평생 동안 근검절약으로 소박하게 생활하면서 모아둔 전 재산이기에 이번 기부는 더욱 감동을 더한다.



이날 호산 스님은 “소중한 후원금을 병원에 입원하는 스님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한용구 아미타불교요양병원 행정원장은 “스님들이 노후에 승가의 위의를 지키며 수행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법인인 만큼, 스님을 공경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병원으로서 스님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일화 스님 “불교문화 발전에 최선”

제3회 무산문화대상 기자회견서
소형 암자까지 템플스테이 확대


제3회 무산문화대상 수상자인 예술부문 서도호 미술가, 문학부문 정수자 시조시인, 사회문화 부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왼쪽부터).

“저의 은사 광주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창립을 기획해 초대 단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20여 년 후 제가 단장으로 취임하고 무산문화대상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입니다.”

제3회 무산문화대상 사회문화 부문 수상 단체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단장 일화 스님은 6월 9일 웨스틴조선 서울 라일락홀에서 열린 수상자 기자회견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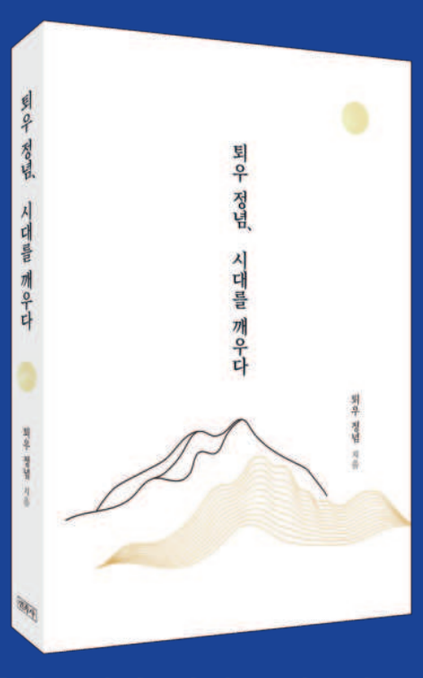
일화 스님은 “지난 20여 년 동안 사업단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 바탕에는 1700년의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가 있다”면서 “유구한 전통의 문화가 있기에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화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주요 사업인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대중화 방안을 전하고 사찰음식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계획도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 5월 19일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내부 의견을 종합해보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사찰음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세계 유수의 요리학교인 르꼬르동 블루, 미국 CIA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사찰음식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찰음식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짧게는 4~5년, 길게는 6년 가량이 걸린다.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학 부문 수상자 정수자 시조시인은 “무산 스님의 말씀을 죽비 삼아 여기까지 왔다”고 밝히며 “시조라는 형식은 절제를 실현하는 좋은 양식으로 탐욕과 폭력이 만연한 현대에 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예술 부문 수상자 서도호 미술가도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퇴우 정념 지음 | 344쪽 | 18,500원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화엄의 세계관으로 읽는 AI시대 문명 철학서
“수행은 법당 안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완성된다”
“불교가 시대와 만나지 않으면 도태된다”



퇴우 정념 스님 저서 출판 기념회 2026년 6월 19일 오후 5시. 서울 앰베서더 풀만 호텔 (장충로 2가) 그랜드볼룸
민족사

도갑사 선명상 축제 "반딧불로 마음평안"

6월 6일 '반딧불이 생명살림'
AI시대 치유 해법으로 선명상 제시
반딧불 방생, 생명존중·평화 발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은 6월 6일 영양 도갑사에서 '반딧불이 생명살림 선명상'을 주제로 '2026 선명상축제 영암'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반딧불이의 작은 빛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서울 봉은사에서 시작된 '2026 선명상 축제'가 6월 6일 영암 도갑사에 두 번째 마당을 펼쳤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6일 영양 도갑사(주지 수관 스님)에서 '반딧불이 생명살림 선명상'을 주제로 '2026 선명상축제 영암'을 개최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반딧불이의 작은 빛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에는 도갑사 주지 수관 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혜오 스님, 도갑사 포교국장 고월 스님, 싱잉볼 전문가 소요를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영암 구림공업고등학교에 유학 중인 베트남 학생 30여 명도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자연과 명상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선명상의 가치를 몸소 느꼈다.

행사는 AI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심리 상태에 맞는 명상법을 제안하는 '마음처방전'을 시작으로 수안 스님의 음악 공연 '노래가 있는 선명상', 소요의 '소리치유 선명상', 고월 스님과 소요가 함께한 '향기로 여는 선명상', 혜오 스님의 '생활 속의 실천 선명상' 등이 이어졌다.

이날 축제에서는 특히 영암곤충박물관과 협력해 반딧불이의 생태를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청정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의 생태적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국장 혜오 스님은 "조계종은 전통 수행인 선명상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중화·현대화하고 있다"며 "도갑사의 청정한 자연과 반딧불이의 은은한 빛 속에서 번뇌를 내려놓고 내면의 순수한 빛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AI시대일수록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선명상이 마음의 평화와 치유를 얻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나선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반딧불이가 상징하는 청정함의 의미를 강조하며 "청정함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참회가 일어나고 수행이 시작된다"며 "오늘 선명상과 반딧불이의 빛을 통해 각자의 업장을 녹이고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갑사 주지 수관 스님은 "반딧불이 방생과 생명살림은 우리 자신과 지구를 함께 살리는 일"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모두의 업장을 녹이고 행복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자 축제의 마지막 순서로 반딧불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생 의식이 진행됐다. 반딧불이의 작은 빛이 어둠 속 숲길로 흩어지자 참가자들은 두 손 모아 생명의 소중함과 세상의 평화를 발원했다.

월우 스님은 방생에 앞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오늘 방생하는 반딧불이처럼 우리 사회가 더 밝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영암 도갑사에 이어 10월까지 전국 주요 사찰을 순회하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 수행 전통을 접목한 선명상축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동대부중 파라미타 "소아암 환아에 써 주세요"

6월 10일 아름다운동행에
바자회 수익금 206만원 전달


동대부중 파라미타학생회는 6월 10일 교내 큰법당에서 아름다운동행에게 자비나눔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 206만400원을 전달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교장 박규태, 이하 동대부중) 파라미타학생회가 교내 바자회에서 모연한 수익금을 소아암 환아를 위해 기부했다.

동대부중 파라미타학생회는 6월 10일 교내 큰법당에서 아름다운동행(상임이사 법오 스님)에게 자비나눔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 206만400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전교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열리는 '자비나눔 바자회'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 얻은 수익금이다. 이번 바자회에서도 학생들이 쓰지 않는 물건들을 파라미타학생회 임원들이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를 진행했다.

전달식 이후 법오 스님은 동대부중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스님은 "동대부중 학생들이 소아암으로 병원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도움을 주게 된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박규태 동대부중 교장은 "평소 아이들은 어떤 것이 소중하고 귀한지 모를 때가 많다"며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여기서 얻어진 수익금이 이웃을 도와 자비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면 한다"고 전했다.

윤정후 동대부중 파라미타학생회장은 "매년 바자회를 통해 모두 한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며 "소아암 친구들이 하루 빨리 쾌차해 바자회도 같이 하며, 함께 놀았으면 좋겠다"고 염원했다.

박지운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일본 교토 고찰서 불교 페스티벌 열린다

7월 2일 콘카이코묘지서 개최
낮엔 토크쇼–밤엔 스님들 공연


일본 불교 밴드 'THE南無S'.
사진 출처=오리콘 뉴스

최근 우리나라에 '힙불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일본 불교계도 MZ세대를 겨냥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어 화제다.

6월 7일 일본 '오리콘 뉴스', '야후 재팬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오는 7월 열리는 불교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에 대해 보도했다.

오는 7월 2일 교토의 고찰인 콘카이코묘지(金戒光明寺)에서 개최되는 불교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THE 극락 NIGHT in 대본산 콘카이코묘지'는 불상 애호가로 유명한 연예인 미호토케의 발의로 시작됐다. 7월 1일부터 3일간 교토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컨퍼런스 'IVS 교토 2026'의 부대 행사 중 하나로, 낮과 밤의 2부로 구성됐다.

행사가 열리는 콘카이코묘지는 1175년에 창건된 고찰로 일본 정토종의 종조 호넨(法然) 스님이 최초로 염불도량을 세운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토종의 7대 본산 중 하나다.

1부 낮에는 경제와 불교를 함께 살피는 토크쇼 '최애와 기도'가 진행된다. 발의자인 미호토케가 사회를 맡고 카와베 켄타로 일본 LINE 야후 대표이사와 일본 정토종 이케구치 호류 스님·카와무라 에이쇼 스님이 대담에 나서 '종교'와 '아이돌'에 어떤 교차점이 있는지 이야기할 예정이다.

2부 밤에는 'THE 극락 NIGHT'라는 라이브 공연을 통해 본격적인 축제 분위기를 끌어 올린다. 스님이 이끄는 만담 콤비 '도돈'의 공연과 스님이 보컬을 맡고 있는 불교 밴드 'THE 南無S'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 지난 2024년 법문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코타니 코쇼 스님의 법문도 진행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철우 스님, 30년 반야지혜 포교 회향

6월 5일 정년퇴임 학술세미나
월우 스님 "퇴임해도 도움 부탁"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이 정년퇴임하는 철우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불교대학원장 철우 스님이 30년간 학승으로서 펼쳐온 반야지혜 포교 활동을 회향했다.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6월 5일 교내 자비관 4층 대강당에서 '철우 스님 정년퇴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에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철우 스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활동에 박수를 보냈다. 스님은 정년퇴임을 기념해 중앙승가대에 교육불사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철우 스님은 정년퇴임 기념세미나에 참석한 사부대중들에게 "해인사 강원에 27기로 공부하며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는 원력을 세워 법주사 강원 등을 다니다가 동국대에서 석·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중앙승가대에서 전임으로 활동해 오다가 오늘을 맞이하게 됐다"며 "그동안 KCI 등재 소논문 15편을 묶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과 〈중국 조계선 사상과 선시 연구〉,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세상에 내어 놓는다"고 말했다.

총장 월우 스님은 축사에서 "중앙승가대에서도 후학을 양성하며 힘쓰시다 무거운 소임을 소화하고 학자로 연구에도 힘쓰셨으니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중앙승가대를 잊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오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도 축사를 통해 "학문의 세계는 대해(大海)와 같으니 무쇠소가 바다를 건너가듯 전진으로 고해의 중생을 건너가게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학술세미나 제1세션에서 철우 스님은 '다이어트 식단 논쟁과 마음챙김 명상 고찰-다이어트 논쟁과 마음챙김 먹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기조발표가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결혼 커플' 배출 낙산사서 새로운 인연을

복지재단, 7월 11~12일 '나는 절로'
6월 8~22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올여름 동해 바다의 낭만을 간직한 양양 낙산사(주지 일념 스님)에서 열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나는 절로, 낙산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수도권·강원권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과 연관 있는 2030 세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미혼남녀 각 10명씩을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6월 22일 오전 10시까지 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를 참조해 구글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나는 절로'는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만남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해 자연스러운 관계 맺음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참여자들이 보다 가까운 환경에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행사가 열리는 낙산사는 남해 보리암, 강화도 보문사와 함께 한국의 해수관음성지 3곳으로 꼽힌다. 특히 2024년 8월 진행한 칠월칠석 특집 '나는 절로, 낙산사' 편에서 결혼 커플이 탄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번 '나는 절로, 낙산사'는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성현)과 협업해 진행된다.

이현희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신임 시설장 5명 임명

6월 7일, 서울 전법회관서
퇴임 시설장 5명에 감사패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6월 7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산하시설 신임 시설장 임명장 수여식 및 퇴임식'을 개최했다. 복지재단은 신임 시설장 5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퇴임 시설장 5명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신임 시설장에게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불교사회복지 실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퇴임 시설장에게는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시설장은 기관 운영뿐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불교사회복지 가치를 바탕으로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해 신뢰받는 기관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시설장은 거창 군삶의쉼터 관장 금선 스님, 김건태 우산종합사회복지관장, 고록화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희 영통어린이집 원장, 장인수 수락노인종합복지관장이다. 신임 시설장들은 "불교사회복지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간 불교복지 발전에 힘써온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과 신용삼 수송보현의집 시설장, 정민희 자광원 원장, 김옥희 금륜어린이집 원장, 박미란 영통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현희 기자

수원 봉녕사, '계율과 수계의범' 연수교육

6월 23~25일 경내 도서관 2층
'수계 역사·의의' 등 10강 구성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내 도서관 2층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2026년 제14차 봉녕사 계율연수'를 개최한다. 계율과 수계의범을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수계의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계의식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총 10강으로 구성됐다. 23일 △서봉 스님의 '수계의 역사', '수계의 의의와 목적' △적연 스님의 '삼귀의오계 수계의범', 24일 △적연 스님의 '팔관재계 수계의범', '십선계 수계의범' △정현 스님의 '계체의 의의', '계체의 형성 조건', 25일 △선정 스님의 '삼귀의오계 수계작법', '팔관재계 수계작법', '십선계 수계작법'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6월 23일까지 봉녕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bong4127@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봉녕사 묘엄불교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전액 무료다. 010-5211-8873

이현희 기자

교정교화전법단, 대구교도소서 지원법회

6월 9일, 재소자 교화·전법
혜원 스님 "집착 내려놓아야"



조계종 포교부 교정교화전법단(단장 혜원 스님)이 6월 9일 대구교도소에서 지원법회를 봉행하고 재소자 교화와 전법 활동을 이어갔다.

법문에 나선 혜원 스님은 "눈이 색을 보려면 색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귀가 소리를 들으려면 소리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며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스님은 "불교는 아견과 집착이 진정한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가르침이며, 생각의 근원이 되는 '생각 없음'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했다.

도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좋고 싫음, 쉽고 어려움, 빠름과 느림 등 수많은 차이를 경험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다양한 인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며 "오늘의 사회 역시 수많은 인연 공덕으로 삶이 유지되기에,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운 기자

“생명 살린 이들과 호국영령 기립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⑥ 생명나눔 천도재 현장

생명나눔, 6월 6일 불암사서 봉행
장기기증자·순국선열 460위 모셔
유격대원 20위 봉안…육사생 동참
정현숙 단장, ‘신칼대신무’ 공연도

남양주 불암사=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제32회 생명나눔 천도재’를 봉행하며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떠난 이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사진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육사생도들과 함께 이날 모셔진 위패에 예를 다하는 모습.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전문 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불암사·생명나눔회원 및 순국선열을 위한 제32회 생명나눔 천도재’를 봉행하며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떠난 이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호국보훈의 달이자 현충일에 열린 이날 천도재에는 장기·시신기증 희망등록자와 후원회원, 유가족, 육군사관학교 생도, 불자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생명의 소중함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천도재에는 모두 460기의 위패가 모셔졌다. 위패에는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세상을 떠난 기증자들과 유가족은 물론 반려견·반려묘의 이름까지 함께 올랐다. 모든 생명의 인연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자비의 의미가 천도재 곳곳에 스며들었다.

특히 이날 천도재에는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불암산 일대에서 서울 수복과 지역 방어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 20위의 위패도 함께 봉안돼 의미를 더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1기 10명과 2기 3명, 육군 7사단 소속 군인 7명, 그리고 유격대를 도운 당시 불암사 주지 윤용문 스님 등이 그 주인공이다.

천도재에서는 전통 진혼무인 ‘신칼대신무’ 공연이 펼쳐졌다. 무대를 맡은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은 경기도 재인청(才人廳) 살풀이 이수자로, 망자의 한을 풀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춤사위를 선보였다.

‘신칼대신무’는 딸이 죽은 아버지의 영혼을 인도해 극락으로 보내는 내용을 담은 전통춤이다. 긴 대나무 양 끝에 흰 창호지를 달아 잡귀를 막고 망자의 저승길을 닦는 의미를 지닌다. 정 단장은 느린 호흡과 절제된 몸짓 속에 슬픔과 그리움, 위로와 해원의 정서를 담아내며 경내를 숙연하게 물들였다. 흰 창호지가 바람을 가르며 흔들릴 때마다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과 생명나눔으로 새 생명을 살리고 떠난 이들의 숭고한 뜻을 함께 기렸다.

유가족을 비롯한 동참자들은 두 손 모아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영가들의 이름이 한 자 한 자 호명될 때마다 참가자들은 합장한 채 고개를 숙였고 경내는 생과 사를 초월한 깊은 위로와 발원이 퍼져나갔다.

한 동참자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천도재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불암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생명나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매년 이어오고 있는 생명나눔 천도재는 추모의식을 넘어 생명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불교계 대표 의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기기증자들의 숭고한 선택을 기억하고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불교적 생사관을 사회에 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천도재를 현충일에 봉행함으로써 생명나눔과 호국정신이 하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장기기증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린 이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모두 자신의 삶을 타인을 위해 내어놓았다는 점에서 같은 자비와 보살행의 정신으로 조명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천도재는 떠난 이를 위한 의식이기도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생명나눔 정신을 사회에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조혈모세포·시신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비롯해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 교육 등 다양한 생명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이 진혼무 ‘신칼대신무’를 선보이며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날 천도재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도 함께 자리해 선배 전우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천도재 동참자들이 두 손 모아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일면 스님의 생명나눔 천도재 법문

“구름처럼 왔다 가는 인생, 오늘 최선 다해 살아야”



생명나눔실천본부가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봉행한 ‘제32회 생명나눔 천도재’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우리가 참선할 때 가장 먼저 드는 화두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고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지 늘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옛 조사 스님들은 사람의 삶을 하늘의 구름에 비유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생겨나는 것과 같고 죽는 것은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 있는 것 같지만 바람 따라 흩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여든입니다. 열두 살에 절에 들어와 지금까지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잘한 일보다 부족했던 일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삶에 점수를 매겨봅니다. 과연 몇 점짜리 인생인가 생각해보면서 남은 삶만이라도 말과 행동, 표정을 바르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천도재에는 육군사관생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큰 꿈을 가지십시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만큼 자기 길이 열립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몸이 큰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결과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더 존경합니다. 100미터를 빨리 뛰는 사람보다 자기 힘을 다해 뛰고 쓰러지는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 인생 80년 가운데 3년 쯤은 없다고 생각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고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26년 전 간 이식을 받고 지금까지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나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이기에 살아 있는 동안 서로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도재는 영가들이 생사의 괴로움을 벗고 편안한 세계로 가기를 발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법문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열린 ‘불암사 · 생명나눔회원 및 순국선열을 위한 제32회 생명나눔 천도재’에서 설한 법문 중 일부입니다.

정리=임은호 기자

2026년 생명나눔실천본부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공고



지원 대상
- 백혈병, 소아암, 장기이식 대기자 등 회복 또는 완치 가능 환자
- 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 기타 내부 기준에 따라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신청 기간
- 매월 상시 접수

지원 내용
- 치료 및 수술에 필요한 의료비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및 범위는 심의를 통해 개별 결정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유식과 인지심리, 마음 치유를 모색하다

6월 7일,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통도사 반야암서 학술대회
현대인 마음병, 유식학으로 조명
"유식, 마음 꿈 해결 불교심리학"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6월 7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인지심리학과 유식의 마음작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학술대회 단체 기념촬영. (앞줄 왼쪽부터 김성태 이사장, 원장 지안 스님, 이정희 동의대 교수, 뒷줄 왼쪽부터 김명우 · 구자상 · 조수동 · 김희 · 최성호 · 이길산 · 박재용 교수)

불교의 심리학인 유식학과 현대 인지심리학을 교차해 마음의 본질을 분석하고 치유를 모색하는 학술의 장이 열렸다.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은 6월 7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2026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인지심리학과 유식의 마음작용-변행, 별경, 선심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의 마음 분석법을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풀어낸 연구들이 잇따라 발표됐다.

먼저 김명우 동의대 교수는 유식 문헌에 나타난 마음의 작용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유식학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등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불교의 심리학"이라며 "우리를 괴롭히는 잘못된 착각(전도몽상)의 원인을 찾고, 선한 마음을 길러 번뇌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고 서론을 열었다.

이어 불교에서 말하는 5가지 특별한 마음 작용(원함, 확신, 기억, 집중, 지혜)을 현대 인지심리학의 개념들과 비교 분석했다. 그는 "인지심리학은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고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 자아를 강화하지만, 불교의 유식학은 오히려 내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번뇌를 가라앉혀 완전한 평안(열반)에 이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두 학문의 차이점을 짚었다.

이길산 경남대 교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 참(慚)과 괴(愧)를 통해 불교의 도덕 심리학적 측면을 살폈다. 이 교수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과 남을 의식하는 괴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악행을 막고 선행을 이끄는 핵심적인 도덕 감수성"이라며 초기 불교 문헌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성유식론〉을 바탕으로 "이 두 마음은 선한 행동은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악한 행동은 멀리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풀이했다. 나아가 "불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으로 다가가려는 동기와 악을 피하려는 동기가 어떻게 결합해 윤리적 행동을 만드는지 분석해 낸 정교한 심리학"이라고 평가했다.

강형철 동국대 교수는 현대 정신질환인 다중인격(해리성 정체성 장애)을 유식학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강 교수는 "자아에 집착하는 마음(제7 말나식)이 이 조각난 기억들을 번갈아 가며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다중인격"이라며 "제7 말나식이 특정 명언종자 무리를 '나'라고 집착하는 아집을 내려놓고 평등성지를 획득할 때 분열된 인격들은 하나의 청정한 대원경지 안으로 온전히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정희(동의대), 최성호(서울대), 박재용(동국대) 교수의 논평이 이어졌으며, 조수동 명예교수(대구한의대)의 진행으로 총평 및 폐회가 진행됐다.

이날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지안 스님은 "불교를 일반 대중들이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고, 지성의 연대를 도모하며 불교의 참된 본질을 알리자는 취지로 연구원을 설립한 지 어느덧 15년째가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학술대회와 교양 강좌를 열며 얼마나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실까 기대와 걱정을 안고 준비해 왔다"며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단 한 분이라도 이번 강연에서 지혜를 얻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입재…90일 정진 돌입

6월 3일, 선지식 초청법회
사부대중 1000여 명 동참
선망부모 극락왕생 발원


금정총림 범어사가 6월 3일 경내 설법전에서 '202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재식에서 사부대중을 향해 법문하고 있는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 조실 혜국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다가오는 우란분절을 앞두고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90일간의 백중지장기도 정진에 돌입했다.

범어사는 6월 3일 경내 설법전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202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대덕 스님들의 릴레이 법문을 통해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하고 참된 수행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입재 법석에는 금봉선원 조실 혜국 스님이 법사로 나서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혜국 스님은 "조상 천도는 돌아가신 이를 위한 기도를 넘어 맑은 정신을 후손에게 이어주는 일"이라며 "기도 중 일어나는 번뇌를 내 마음속 찌꺼기를 비춰보는 수행의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했다. 이어 "분별심을 내려놓고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 중생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대중의 부단한 정진을 독려했다. 정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한 몸으로 법당에 나와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부모와 조상이 맺어준 크나큰 은혜"라며 "매주 이어지는 14번의 선지식 초청법회에 꾸준히 동참해 앞으로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선지식 초청법회는 오는 8월 30일까지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진행된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6월 13일)을 시작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7월 18일), 수불 스님(8월 8일),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8월 13일),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8월 22일) 등 14명의 선지식이 차례로 법상에 오른다. 회향 법문은 8월 30일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가 맡아 90일 기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도림사, 환경보전 유공 부산시장 표창

6월 5일, '제31회 환경의 날' 맞아
보자기 활용 등 자원 순환에 앞장



부산 도림사(주지 정찬 스님)가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부산시는 6월 5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환경보전 유공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도림사는 민간부문 유공자로 선정됐으며, 이날 기념식에는 주지 정찬 스님이 사찰과 신도 대표로 참석해 표창을 받았다.

도림사의 이번 수상은 우연히 시작된 사찰 주변 정화 활동이 30년 넘게 신도들의 자발적이고 꾸준한 환경운동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주지 정찬 스님은 1992년 사찰에 부임한 뒤, 1995년 어린이 법회를 개설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절 뒷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도량 안팎을 청정하게 유지하려는 소박한 마음에서 출발했다.

정찬 스님은 "그때는 환경보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절 주변이 지저분해 정화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며 "우연의 일치로 그 실천이 올해로 꼭 31년이 되었고, 평소 쓰레기를 줍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신도들과 함께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신도들은 사찰 내에서 개인 물컵을 사용하고 '빈 그릇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나아가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지구사랑가방(에코백)' 8000여 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고, 비닐봉투 대신 직접 접은 신문지 봉투나 보자기를 활용하는 등 자원 순환에 앞장서 왔다.

최근에는 부산녹색구매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찰 내 녹색제품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버려지는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 새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플라스틱 방앗간' 프로젝트에도 동참하며 지역사회의 친환경 소비문화를 이끌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호국 법석' 홍법사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 유훈
순국선열 · 호국영령 넋 기려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발원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독성각 앞 잔디마당 특설무대에서 '제36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봉행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발원했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는 홍법사 창건주 고(故) 하도명화 보살의 원력에서 비롯된 행사다. 하 보살은 생전 자신의 제사를 따로 지내지 말고 현충일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려달라는 뜻을 남겼다. 홍법사는 이를 받들어 36년째 바라밀재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에는 불자와 시민,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족, 주한미군 관계자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심산 스님은 "오늘의 홍법사는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님의 뜻과 수많은 사람의 정성이 모여 이룬 결과"라며 "그 정신을 잘 이어가고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법회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삼광사 '어린이·청소년 문화아카데미'

예술 체험 · 인성 함양 프로그램
6월 중 선착순 모집…전액 무료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인성 함양을 돕기 위해 다채로운 예술의 장을 마련한다.

삼광사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경내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아카데미'를 개강한다. 프로그램 모집은 6월 중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함께 웃고, 함께 배우며 놀이처럼 즐기는 문화예술 교육'을 목표로 기획됐다. 참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세상을 배우고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매주 일요일 연령별 맞춤 과정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일정은 △합창(어린이·청소년 30명, 오후 1~3시) △음악줄넘기 및 칼림바(어린이 30명, 오후 3~4시) △풍물·난타(청소년 20명, 오후 2~4시) 등 총 4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삼광사 어린이·학생회에 가입한 회원은 우선 선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삼광사 종무실 또는 교무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051-808-7111~6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고성 운흥사, 제296회 영산대재

6월 7일, 호국의 달 맞아
순국선열 극락왕생 발원



경남 고성 운흥사(주지 월암 스님)는 6월 7일 '제296회 호국영령과 국태민안을 위한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주지 월암 스님은 봉행사에서 "임진왜란 당시 사천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처음 출격시켜 왜선을 격파한 역사적인 전투"라며 "총상을 입은 이순신 장군이 이 지역 차나무에서 얻은 기름으로 상처를 치료했다는 전승은 남해안 차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운흥사를 비롯한 지역 사찰들이 전통 차문화를 복원하고 계승해 호국과 수행의 정신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며 "오늘 영산대재의 공덕이 모든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으로 이어지고 나라의 평안과 국민 화합, 지역사회의 안녕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격려사에서 "운흥사 영산대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대표적인 불교문화 행사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동련, 제80차 전국지도자연수회 개최

6월 20~21일, 경주 황룡원서
'사회정서학습' 관계기술 익혀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미수 스님)이 다가오는 여름불교학교를 앞두고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과 배움의 장을 마련한다.

(사)동련은 오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제80차 전국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우리가 만나는 붓다피아'를 주제로 80명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연수회의 핵심 키워드는 사회정서학습(SEL, Social Emotional Learning)의 '관계기술'이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대두되는 소통과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이 아닌 공존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율동, 협동놀이, 만들기 활동 등을 통해 '나'로부터 '우리'로 확장되는 연결감을 체험하며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의 밑거름을 다지게 된다.

또 연수 첫날인 20일 오후 4시에 봉행되는 입재식에서는 '제42회 전국연꽃문화제' 대상 시상식이 함께 거행된다. 시상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상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미수 스님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붓다피아의 여정에 함께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만디서 모스플라이 초대전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화·판화·미디어 작품 선보여



울산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2 전시실에서 아티스트 모스플라이(mothfly) 초대전 'Sorry, I'm Late'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 아트페어와 단체전을 통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모스플라이의 여섯 번째 개인전으로, 작가 특유의 위트와 유머를 통해 삶의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들이 소개된다.

모스플라이의 작품은 거창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솔직하게 드러낸다. 밝고 유쾌한 화면 속에는 피로와 냉소, 외로움이 공존하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비극을 유머와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작가만의 시선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원화와 판화, 미디어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 무료. 052-243-9500 성낙두 경남지사장

“옹산 대종사여, 참된 해제 누리옵소서”

수덕사, 6월 8일 영결식 엄수
우송 대종사 “생사 초월 경지”

유재상 충청지사장


덕숭총림 수덕사 선덕 숭담당 옹산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6월 8일 수덕사에서 엄수됐다.

덕숭총림 수덕사 선덕 숭담당 옹산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6월 8일 수덕사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와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장의위원장 도신 스님(수덕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 최재구 예산군수, 강승규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다.

명종 5타로 시작된 영결식은 행장소개, 추도입정, 영결사, 법어, 추도사, 조사, 헌화, 문도대표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정경 스님, 행장소개는 정암사 주지 법룡 스님, 추도입정은 덕숭총림 유나 현전 스님이 맡았다.

장의위원장 도신 스님은 영결사에서 옹산 대종사가 향천사와 수덕사 주지를 역임하며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고 회고했다. 또 포살 법석에서 사부대중의 정신을 일깨우던 사자후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고 추모했다.

도신 스님은 “대종사께서는 안거가 끝나 맞이하는 해제는 진정한 해제가 아니며, 참된 성품을 깨달아 견성을 이룰 때 비로소 생사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해제가 된다고 하셨다”며 “철 따라 오고 가는 안거와 해제를 모두 마치신 큰스님께서 대자유와 대열반의 참된 해제를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는 법어에서 옹산 대종사의 임종게를 통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수행자의 경지”를 전하며 대중에게 본래면목을 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설정 대종사는 추도사에서 스님과의 오랜 인연을 회고하며 “수덕사가 많은 빚과 송사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 재무를 맡아 4년 만에 부채를 정리하고 사중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은사 스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경허·만공 선사를 선양하는 일에도 평생 정성을 다한 스님이었다”고 말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조사에서 “큰스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차 한 잔과 향 한 자루를 통해 생명과 희생, 헌신의 가르침을 남기셨다”며 “큰스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충남 불교계와 지역사회에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도대표 허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출가 초기 옷 한 벌을 청하자 낡은 옷을 내주며 ‘나도 옷이 없다’고 말했던 일화를 전하며 “소박함과 청빈함, 정직함이야말로 은사 스님께서 문도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고 말했다.

영결식 후 법구는 사부대중의 만장행렬을 앞세우고 수덕사 경내를 돌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다비장에 이운된 법구는 사부대중의 염불 속에 연화대에 안치됐으며 참석자들은 큰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되새겼다. 거화 후 다비를 마친 법체는 습골 절차를 거쳐 다비장 일원에 산골됐다.

숭담당 옹산 대종사는 수덕사와 향천사 주지를 역임하며 경허·만공 선사의 선풍을 계승하는 데 힘써 왔다. 또 선문화 진흥과 수행도량 복원, 지역 포교와 문화유산 보존에 헌신한 선지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AI 스님·반려견까지…엄숙함 벗은 불교문화엑스포 6월 11~14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6 대한민국 불교 문화 엑스포’가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엑스포는 대구·경북 지역의 전통 불교 문화에 첨단 기술과 지역 관광 산업을 접목해 불교의 가르침과 대중적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엑스포에는 149개 업체에서 총 229개 부스가 참여했다. 특히 트렌드 변화에 맞춰 최초로 ‘반려동물 친화적 프로그램’을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글·사진=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동화사, 첫 어린이법회 ‘성불놀이터’ 창단

6월 7일, 통일대불전서 창단식
선광 스님 “지혜로운 삶 배우길”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가 창건 이후 처음으로 어린이법회인 ‘성불놀이터’를 공식 창단하며 미래세대 포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동화사는 6월 7일 통일대불전에서 어린이와 학부모,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동화사 어린이법회 창단식’을 봉행했다. 창단과 함께 모집한 ‘최초의 108인 어린이’는 접수 시작과 동시에 정원이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으며 어린이 포교에 대한 기대를 입증했다.

동화사 어린이법회는 ‘성불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기존 강의 중심 어린이법회와 달리 사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로 활용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어린이들은 팔공산의 자연환경 속에서 뛰어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주지 선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절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지혜로 함께하고 나누는 삶을 배운다”며 “아이들이 훌륭한 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동화사는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운 어린이 대표는 발원문에서 “1500년 동화사 역사 속 새로운 발걸음인 어린이법회의 첫 회원이 된 것을 큰 기쁨과 자랑으로 생각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나와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불놀이터는 매월 둘째·셋째·넷째 주 일요일에 운영되며 사찰음식과 발우공양을 활용한 소꿉놀이를 비롯해 병원놀이, 선명상, 공동체 놀이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포교국장 동우 스님은 “일반적인 법회와 달리 올 때마다 새로운 놀이와 특별한 이벤트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성불놀이터의 차별점”이라며 “여름방학 기간인 7월에는 여름불교학교를 열어 원어민 영어 캠프와 한자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베트남 사찰 ‘광주 길상사’ 개원

6월 7일, 개원법회 봉행해
“이주민 품는 도량 만들 것”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민과 불자들의 신행 중심도량이자 마음의 고향이 될 베트남불교 사찰 길상사가 광주 광산구에 문을 열었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자리한 베트남불교 길상사(주지 틱 뜨엉탄 스님)는 6월 7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길상사 주지 틱 뜨엉탄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교민이 35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교는 이주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길상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원오 총도량과 신도들의 원력으로 이뤄진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도심 속 작은 공간이지만 수행과 교육, 다문화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열린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축사에서 “오늘 길상사의 개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광주 불교계는 베트남 불자들을 같은 길을 걷는 도반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함께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 호 주한 베트남대사는 축사를 통해 “길상사가 베트남 동포들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문화·신행의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증명법사인 틱 꽝누언 스님은 법문에서 “사찰 건립의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며 “타국에서 사찰을 세우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님들과 베트남 공동체의 원력으로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격려했다. 이어 “길상사가 베트남 이주민과 젊은 세대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소중한 도량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 길상사는 연면적 500㎡ 규모의 4층 건물로 조성됐다. 3층은 법당과 수행공간, 2층은 숙소와 임시 거주 지원공간, 1층은 교육·문화행사 공간, 지하 1층은 공양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베트남 불자들의 신행 터전이자 다문화 공동체를 위한 수행·교육·문화의 거점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천 청암사 “불교 다맥 계승”

6월 6일, 제1회 헌다례 봉행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 스님)는 6월 6일 대웅전에서 삼보전에 차를 올리는 ‘제1회 헌다례’를 봉행하고, 차 수행의 의미와 전통 다도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 다도의 중흥조인 초의선사의 다맥을 계승하는 청암사의 수행 전통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삼보전에 올릴 차를 준비하는 ‘시다례’를 시작으로, 스님들이 직접 찻잔을 들고 대웅전으로 향해 정성껏 우려낸 차를 공양하는 ‘헌다 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통적인 녹차와 말차, 보이차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친숙한 커피가 공양물로 올려져 눈길을 끌었다.

주지 상덕 스님은 법문을 통해 “단순히 고급스러운 음료로 여겨 화려함이나 특별함만을 추구하는 다도 생활은 승가에서 경계해야 할 바”라며 “청암의 수행자들은 이번 행사를 차 수행의 과정에서 흩어진 마음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암사는 첫 헌다례를 시작으로 차를 통한 불교 수행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사찰에서 직접 100일간 발효·숙성한 약차를 제다(製茶)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차 수행과 명상 문화를 대중에게 더욱 널리 알릴 방침이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1회 마이산 탑사 그라운드골프대회 성료

6월 9일 진안읍 공설운동장서



진안 마이산 탑사(회주 진성 스님)가 무주·진안·장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첫 번째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했다.

6월 9일 진안읍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마이산 탑사배 그라운드골프대회(개인전)’는 진안군을 비롯해 인근 무주군과 장수군 어르신 선수 8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은 구상모 어르신이 차지했다. 이어 준우승은 최우상, 3위는 이인화, 장려상은 유태영·문순이·장종섭·정용수 어르신이 이름을 올렸다.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과 보리수봉사단은 경기 운영과 행사 안내를 맡아 원활한 대회 진행을 도왔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커피봉사단은 핸드드립 커피를 제공했다.

개막식에서 김용진 진안군 그라운드골프협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스포츠를 즐기며 화합하는 제1회 대회를 지원해 준 마이산 탑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이산 탑사 회주 진성 스님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이 전체적인 후원을 맡아 제1회 대회를 시작하게 됐다”며 “오늘 대회를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진안과 무주, 장수를 아우르는 ‘무진장 그라운드골프대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덕사, 경허 선사 열반 114주기 다례

6월 9일 대웅전서 열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6월 9일 대웅전에서 한국 근현대 선불교 중흥조인 경허당 성우 대선사 열반 114주기 다례를 봉행했다.

다례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참석해 경허 스님의 수행 정신과 선풍을 기렸다.

설정 스님은 “조선시대 불교 탄압으로 정법의 등불이 꺼져가던 시기에 경허 스님은 부처님 정법의 선등을 다시 밝히셨다”고 말했다. 이어 “출·재가를 막론하고 불법을 믿고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경허 스님이 남긴 ‘참선곡’ ‘법문곡’ ‘중노릇하는 법’ ‘가가가음’의 네 법문을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며 “수덕사가 이를 소책자로 만들어 누구든지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화암사·심원사·자인사, 합동 방생법회

6월 7일 화암사 다라지서



화암사(주지 대현 스님)와 심원사(주지 청현 스님), 자인사(주지 홍현 스님)는 6월 7일 화암사 경내 연못인 다라지(陀羅池)에서 ‘합동 방생법회’를 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생명존중과 평화의 정신을 함께 되새겼다.

심원사 주지 청현 스님은 “방생법회는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의 한 방편으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자비심을 키우는 자리”라고 강조했으며, 화암사 주지 대현 스님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방생법회를 통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법회에 이어 방생 의식을 진행하며 모든 생명의 존엄과 평화를 기원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올여름, 불교무용 진수 만난다

'제12회 불교무용대전'
6월 12일~7월 4일 대학로서
7월 3일 기념학술대회 개최

'제115회 한국 명인명무전'
6월 2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원로·중견 무용가 78명 참여


수(修) 예술단이 불교무용대전서 선보이는 '修-닦다' 공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여름, 불교무용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공연들이 펼쳐진다.

시작은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불교무용대전'이다. 불교무용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가 주최·주관하고 조계종 문화부가 후원하는 제12회 불교무용대전은 불교를 소재로 한 무용 작품 가운데 불법승(佛法僧) 삼보를 폄훼하지 않는 전통·창작 분야의 모든 작품을 아우르는 경연으로,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12회 불교무용대전은 본선 공연을 비롯해 기념학술대회, 결선 및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주요 일정은 △본선 공연(6월 12일~6월 28일, 성균소극장) △제12회 불교무용대전 기념학술대회(7월 3일, 대학로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 △결선 및 시상식(7월 4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으로 구성된다.

불교무용대전에는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정된 국내 12개 팀과 해외 3개 팀 등 총 15개 팀이 참가해 3주간 매주 금·토·일 다채로운 무대를 펼친다. 본선 및 결선 심의를 거쳐 종합대상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상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불교무용의 예술적 가치와 발전 방향을 조명하고, 국내외 예술가 간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은 "불교에서 몸짓과 춤은 단순한 시각적 유희가 아니라 수행이자 부처님의 진리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보현행원(普賢行願)"이라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찰나의 몸짓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평온과 치유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귀한 감로수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동국예술기획이 1990년 11월 21일 처음 선보인 '한국의 명인명무전'이 올해에도 무대에 오른다. 동국예술기획은 "6월 21일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제11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통춤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세대 간 전승의 의미를 보여주는 축제로 꾸며진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지역 무형유산 보유자·이수자, 전통무용가들이 78명이 참여해 진쇠춤을 시작으로 살풀이춤, 교방굿거리춤, 춘앵전, 함흥검무, 태평무, 호남산조춤, 승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설과 사회는 국악인 오정해 씨가 맡았다.

제11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관람료는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3만원이다.

지친 청춘, 템플스테이로 오세요

문화사업단 '청춘 템플스테이'
7월 한 달 진행…98개 사찰서
7000명에게 3만원 체험 기회
6월 24~25일 지역 예약 진행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와 갓생 살기에 지친 청춘들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회복과 불교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한 힐링의 시간인 '청춘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고 6월 8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내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국 98개 사찰에서 총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청년기본법에 준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1991년~2007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만원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다.

'청춘 템플스테이' 예약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예약 페이지는 6월 24일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세종권, 25일은 강원, 전라, 광주, 경상, 대구, 부산권 등 지역별로 오픈된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잠시나마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기를 바란다"며 "공기 좋고 푸르른 산사에서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진정성 있는 참회

④④ 이참사참(理懺事懺)

理 懺 事 懺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유명한 예수의 일침에, 군중은 나이 많은 이부터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다.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으며, 살아가면서 한 번도 허물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없다. 군중은 부끄러움에 돌을 내려놓은 것이다.

우리는 허물 자체보다 허물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에 더 큰 씁쓸함을 느낀다. 잘못이 드러나면 성찰하기보다 먼저 대책회의를 열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사과문부터 준비한다. 아집은 그대로 쥔 채 상황만 모면하려는 위기관리용 사과는 참된 치유에 이르지 못한다.

공자는 '과즉불탄개(過則不憚改)'라 하였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잘못이다"라고 하여 허물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군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사참(事懺)과 이참(理懺)으로 설명한다. 사참이 현상적 차원의 참회라면 이참은 본질적 차원의 참회이다. 규봉 종밀(780~841) 스님은 〈원각경대소초〉에서 "사참이란 성현의 형상을 마주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이라 하였다.

사참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율장에서도 "죄가 있거든 마땅히 드러내어 참회해야 한다. 드러내면 안온하고 숨기면 죄가 더욱 깊어진다"라고 하여 참회의 출발이 정직한 고백에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 이참은 죄의 뿌리를 끊는 수행이다. 종밀 스님은 "지은 바 죄의 자성(自性)이 본래 공(空)함을 관하는 것"이라 하였고, 〈관보현보살행법경〉에서는 "모든 죄는 서리와 이슬 같아 지혜의 해가 뜨면 녹아 사라진다"고 설한다. 이참은 죄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통찰하고, 탐·진·치와 아집의 근원을 비워내는 공의 지혜이다.

그러나 이참은 허물을 부정하는 논리가 아니다. 불교에서는 "죄무자성(罪無自性)이되 종심기(從心起)"라고 한다. 죄는 본래 고정된 자성이 없지만, 한 생각의 의도로 인해 연기적으로 형성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죄의 공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아니라 죄를 낳는 마음의 근원을 성찰하는 일이다.

〈천수경〉의 참회게는 사참의 정직함과 이참의 지혜가 하나 되는 경지를 노래한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 또한 사라지느니라.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사라져 둘 다 함께 공해지면, 이것을 일컬어 참다운 참회라 하느니라."

잘못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용기와 더불어 잘못을 낳은 마음의 뿌리를 비워낼 때 비로소 진참회(眞懺悔)가 완성된다. 그 순간 인간은 죄책감의 감옥을 벗어나 허물에 얽매인 삶을 넘어 자유의 길로 나아간다.

〈화순 불암사 주지〉

올해도 돌아온 '국중박 분장놀이'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개 전국 박물관으로 확대



지난해 문화유산 코스프레로 화제가 됐던 '국중박 분장놀이'가 올해도 돌아왔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국중박 분장놀이'는 참가자가 박물관의 유물을 모티프로 직접 분장하고 무대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표현하는 관람객 참여형 코스프레 행사다. 지난해 첫 대회 당시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와 SNS 확산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는 '국중박 분장놀이'를 13개 소속 박물관이 함께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 개편된다. 모집 단계부터 전국 14개 국립박물관의 대표 유물을 형상화한 포스터를 제작했다.

본선은 9월 첫째·둘째 주말 동안 전국 4개 권역의 거점 박물관에서 진행된다. 1권역(중앙·제주·춘천)은 9월 5일 국립춘천박물관, 2권역(부여·공주·청주·익산)은 9월 6일 국립공주박물관, 3권역(경주·대구·진주·김해)은 9월 12일 국립대구박물관, 4권역(광주·전주·나주)은 9월 13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린다. 최종 결선은 9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된다.

시상 규모도 한층 커졌다. 결선 진출 20팀 중 국립중앙박물관장상 5팀에는 각 300만원, 최우수상 5팀에는 각 100만원, 참가상 10팀에는 각 50만원을 수여한다. 권역별 본선 진출 40팀에는 각 30만원의 참가상이 주어지며, 본선·결선 참가자에게는 팀별 10만원 상당의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6교구본사 麻多寺

불기 2570(2026)년 제77주기

백범 김구(원종스님)선생 추모다례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지승원에 빛나는 천년고찰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 오는 6월 26일(금)
백범 김구(원종스님)선생의 제77주기 추모다례재를 개최합니다.
호국의 정신이 고고히 이어지고 있는 마곡사에서 원종스님이라는 법명으로 출가하신
김구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 하고자
마련한 행사에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70(2026)년 6월 일
주지 취성 원경 합장

■일시 : 불기2570(2026)년 6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 공주 태화산 마곡사
■후원 : 충청남도 공주시 ※오전 10시 문화행사 / 오전 11시 추모다례재

◈ 불·법·승 ◈
문관부 제66호

사단법인 대승불교삼보조계종

1세종정 滅空대종사 법주 正覺대종사

원로원장 월봉 종회의장 지홍 원로부원장 정공. 정민
감찰원장 진성 총무원장 법장 교육원장 덕일
포교원장 법진 사무총장 평산 종회부의장 법융
각부원장 용현. 종욱. 진각

중앙종회의원 월봉 지홍 법장 법융 진성 덕일 법성 평산 법륜 무공 종욱 법진
지일 도능 법정 용현 선묵 도관 도연 천보 도오 도율 무상 (法人이사)

총무부장 지일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선묵 문화부장 도능
재무부장 상묵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기획국장 청붕
총무과장 만주 사서국장 도율 규정국장 대연 사 무 장 신연화성

학 인 모 집
불교경전 의식(선교학 · 범패 · 어산 · 바라 · 작법무)
대한불교종립기관 승가대학 교육원 · 염불원

■ 총 무 원 경남 김해시 호계로499번길4 전화 055)338-0089 팩스 070)7966-2830
■ 중앙종회 부산시 금정구 반송로 440-9 전화 051)524-8932

10돌 대행선연구원 '마음·견성' 논한다

6월 20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초기불교 · 한국불교 등 관점서
마음 · 견성 중심 '선불교' 조망
묘공학술상 · 장학증서 수여식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선불교의 핵심인 '마음'과 '견성(見性)'을 통해 선불교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6월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0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행선연구원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을 대주제로 진행된다. 학술대회는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을 중심으로 초기불교와 중국 선종, 한국 선불교, 대행 선사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며 이를 통해 선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학술대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박보람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초기불교와 선종의 깨달음 문제를 다룬다.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는 '번뇌가 있는 중생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를 통해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을 바탕으로 번뇌와 깨달음의 관계를 고찰하며,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선종의 깨달음이 갖는 특수성-원환적 회귀를 중심으로'를 통해 선종의 깨달음이 일상으로의 회귀와 보살행의 실천으로 완성되는 구조를 분석한다.

김호귀 동국대 교수는 '견성의 속성과 기능 고찰'을 발표하며 선종 수행의 핵심 개념인 견성의 의미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1부 논평은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허진 박사(동국대), 이진영 동국역경원 연구원이 맡는다.

정준영 교수가 좌장을 맡는 2부에서는 대행 선사와 선불교의 견성을 다룬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한마음과 견성'을 통해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과 주인공 관법을 조명하며,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견성 이후 삶에 대한 선불교적 고찰-오후보림을 중심으로'에서 깨달음 이후의 수행과 삶의 실천 문제를 선불교 전통과 대행선 사상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부 논평자로는 박보람 충북대 교수, 손흥철 태산학술원 객좌교수가 참여한다.

학술대회 중에는 제8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제8회 묘공학술장학 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제8회 묘공학술상 수상자로는 최우수상은 없이 우수상에 김두식 불교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의 '대행 선사 관련 연구의 지식 지형과 시계열 변화-LDA 토픽 모델링을 통한 학술 담론 분석'이 선정됐다. 수상 논문은 대행 선사 관련 연구 논문 96편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과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대행선 연구의 발전 과정과 학술 담론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묘공학술상은 2027년부터 운영 방식이 개편된다. 기존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대행선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한마음연구〉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제9회 묘공학술상은 〈한마음연구〉 제17집(2026년 8월)과 제18집(2027년 2월)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제8회 묘공학술장학 증서 수여식에서는 박사과정 9명, 석사과정 3명 등 총 12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증서를 받는다. 선정된 장학생들에게는 2026학년도 1·2학기 동안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대행선연구원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선불교의 핵심 주제인 마음과 견성을 초기불교와 조사선, 한국 선불교, 그리고 대행선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라며 "지난 10년간 축적된 대행선 연구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제8회 묘공학술상 시상과 제8회 묘공학술장학 증서 수여를 통해 우수 연구자와 차세대 불교학 인재를 격려함으로써, 대행선연구원이 추구해 온 학술 연구와 인재 양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만해 스님 시대정신, '도덕문명'에 있다

조성환 교수, 만해아카이브硏 · 불교평론 학술대회서 주장

만해 스님 언급한 '도덕문명'
'개벽파' 관점서 분석 · 조명
"만해의 도덕, 평화 등 포괄
불교가 도덕문명 친화적 인식"


만해아카이브연구소와 불교평론은 6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님의 침묵(沈默) 백 년, 만해의 삶과 시대정신'이란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시대정신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만해아카이브연구소와 불교평론은 6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님의 침묵(沈默) 백 년, 만해의 삶과 시대정신'이란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성환 원광대 철학과 교수는 '만해의 삶과 시대정신'에서 만해 스님이 가졌던 시대정신을 '개벽'과 '토착적 근대' 개념을 통해 분석·조명했다.

'개벽'은 1860년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서세동점의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문명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는 문명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천도교의 '삼대개벽', 원불교의 '정신개벽' 등으로 이어지며, 이들의 사상적 공통점은 "서양의 물질문명에 대해 '도덕문명' 또는 '정신문명'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데 있다.

만해 스님 역시 '도덕과 종교', '도덕문명'을 저서 〈조선불교유신론〉에서 11차례 언급하고 있다. 실제 만해 스님은 〈조선불교유신론〉 '불교의 성질'에서 "종교요 철학인 불교는 미래의 도덕문명의 원료품 구실을 착실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만해는 미래에 도래할 문명을 '도덕문명'으로 전망하며 불교가 이를 구현하는 사상적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수는 만해 스님이 서구제국주의와는 다른 형태에 '문명'을 지향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만해 스님은 '문명=서구'라는 개화파적 등식이 아닌 '문명=도덕'이라는 다른 문명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만해 스님은 공법(公法)이 아닌 대표를 사용하는 행태를 '야만적 문명'이라 했는데 이는 '군국주의'를 의미하며 '도덕과 종교'는 공법과 진리를 따르는 '도덕문명'을 지칭하고 있다.

조 교수는 "만해에게 있어 '도덕'은 단순한 윤리나 규범이 아닌 종교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비폭력, 평화, 정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이 같은 가치가 실현된 문명을 '도덕문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문명' 개념은 만해의 삶과 사상에서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면서 "만해가 왜 일본에 대해 비폭력 저항운동했는지, 3·1만세운동에 가담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만해 스님은 '도덕'의 개념을 인간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이는 만해 스님이 주창한 '만유평등'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서양 사상을 수용하며 평등의 개념은 '인간 안에서의 평등'으로 좁혀지지만 만해 스님은 근대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전통적인 '만유평등' 개념을 고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양 근대의 '만인평등' 사상을 수용하고 있다.

조 교수는 "만해의 평등 개념은 도덕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만물을 아우른다"면서 "전통 불교적 관점에서는 서구의 개인적 평등 관념이 추가된 셈이고 서구적 평등 개념에서 보면 평등의 대상이 만물의 차원으로 확장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해가 지향한 '도덕문명'은 전통과 서양이 어우러진 보다 고차원적 평등, 자유, 평화, 정의가 구현된 세계이고, 이 세계를 만해는 '님'이라는 시어로 표현했다"며 "다만 아직 그 '님'은 현실에 도래하지 않았기에 '침묵'이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선이 경희대 교수의 '〈님의 침묵〉 100주년의 문학적 의미'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의 '철학으로서 시의 가능성'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교수 불자들 한국·일본 명상 수행 살핀다

교불련, 2026 교수불자대회
6월 30일~7월 2일 부산서
韓日 불교 종단 명상체험

교수 불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불교 종단의 명상 수행과 세계의 명상 현황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는 올해로 창종 90주년을 맞은 신뇨엔과 함께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 하얏트 플레이스 호텔과 신뇨엔 부산정사에서 '세계의 명상과 한·일 불교 종단의 명상 수행법'을 대주제로 '2026 한국교수불자대회(이하 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 선덕 월암 스님의 '간화선의 대중화와 한국불교 명상의 현대적 계승'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여는 이번 대회는 2일에 걸쳐 한국과 일본 불교 종단의 명상 수행에 대한 강연과 체험이 이뤄진다.

6월 30일에는 혜주 스님(동국대)을 강사로 '조계종의 선명상 수행 이론과 체험'이 진행되며 7월 1일에는 '신뇨엔의 명상 이론과 체험(로버트 고로쵸스키·신뇨엔 국제부)', '천태종 법화수행 이론과 체험(광도 스님·금강대)', '진각종의 밀교수행 이론과 체험(권기현·위덕대)', '태고종의 명상 수행, 인공지능과 화두 타파 체험(태현 스님·자비선원장)'이 진행된다.

세계 명상 수행의 추이를 살필 수 있는 주제발표들도 주목할 만하다. 대회에서는 미국 위앙종의 현안 스님의 '미국 명상의 대중화와 불교 수행의 과제'를 비롯해 △'일본 근대불교 종단의 명상 수행과 치유 효과(이석환·동국대)' △'영국의 명상 역사와 현황(황미향·행복명상연구소)' △'세계 명상 트렌드 속 한국 선명상의 고령자 적용 가능성(김은희·동아대)' 등 세계 각국의 명상 수행 현황을 조명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전법 특별 세션'이 올해에도 진행된다. 세션에서는 부산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이 '문화포교와 대학생 전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유주연 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이 '대학생이 바라보는 대학생 전법의 올바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연과 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이번 대회는 한국적 명상 콘텐츠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인왕 대종사 10주기 다례재 및 사리보탑 제막식 원만 회향

감사드립니다.
사부대중의 지극한 원력으로 6월 7일 옥천 대약사사에서 봉행된 〈연화경 인왕 대승정 연화 사리보탑 제막식 및 여래종 60년 중흥 종사 다례법회〉를 여법하게 마쳤습니다.

인왕 대종사님의 탄생 100주년과 원적 10주기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각 종단의 대덕 큰스님들과 내외 귀빈, 그리고 온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내주신 정성을 받들어 일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불교 중흥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기 2570(2026)년 6월 7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전종도일동 합장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0~6/16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입보리행론 강의	달라이라마	불광출판사
2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회	동국역경원
3	소설 금강경법회 수보리의 회상	고닐	북이랑
4	육조단경	김현준	새벽숲
5	묘법연화경	광우, 정목	김영사
6	원각경	김현준	효림
7	금강경(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8	금강경 선물(컬러링 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9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원영	불광출판사
10	하루를 살더라도(법구경)	오원탁	불교시대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뭐가 그리 바쁘노	경봉 스님	효림
3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월폴라라훌라/이승훈	경서원
4	탁, 깨달음의 대화	법륜	정토출판
5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덕조 글,사진	김영사
6	간화선	조계종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7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8	화 :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9	고요함의 지혜	에크하르트톨레	김영사
10	아사나 쁘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선암사 사계에 담긴 무위의 아름다움

〈無爲〉



고요히 꽃잎을 바치다

글·사진 이동협 / 목수책방 / 2만8000원

정원사의 선암사 자연 12년 기록

계절 따라 변하는 78종 식물 지도

"산사 정원은 순리와 무위의 공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봄을 맞아 선암사 대웅전 뒤 영산홍과 겹벚꽃이 활짝 피어났다. 사진 제공=목수책방

"그동안 본 정원 중 어디가 제일 좋아요?"

20여 년간 정원을 기록해 온 저자에게 사람들은 묻곤 한다. 정원에 대한 각자의 기준과 취향이 다를진대, 어디가 '최고'라고 줄을 세우는 게 가능키나 할까. 다만 꼭 가보라고, 계절마다 가보라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보라고 소개하고 싶은 정원은 있다. 순천 선암사다.

〈고요히 꽃잎을 바치다〉는 저자가 12년 동안 기록한 선암사의 사계를 담은 책이다. 오랜 시간 정원을 바라봐 온 한 정원사의 시선으로 산사의 자연과 시간, 그리고 불교적 미학을 읽어낸다.

그런데 백제 성왕 5년(527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이래 법맥을 이어온 도량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암사를 '정원(庭園)'으로 볼 수 있을까?

저자는 정원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정의한다. 하늘과 바람과 비와 땅, 생물이 함께 끊임없이 협업해야 만들어지는, 살아 있는 생명이 주인공인 곳이라면 어디든 정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자랑이나 욕심 없이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공간"이자 "관리와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는 순리와 무위의 공간"이 바로 산사의 정원이라고 말한다.

책에 담은 선암사 풍경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의 기록이다. 대중이 머물고 수많은 참배객이 드나드는 절이지만 도량의 일상은 배제하고 오직 식물과 풍광만 기록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암사를 둘러싼 풍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절에 오르는 길이 넓어지거나 고목이 비바람에 쓰러지긴 했어도, 애써 외래종을 도입하거나 월동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만드는 등 인위적 손길은 드물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그저 둘 뿐이다. 개인 정원은 주인의 감각과 성향에 따라 바뀌지만, '불멸의 부처님'이 주인인 선암사 정원은 자연의 섭리에 맡겨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책에는 선암사 초입부터 승선교를 지나 대웅전에 이르고 다시 조계산으로 오르는 길목까지의 풍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담겨 있다. 절 구석구석에 자리한 동백나무, 금목서, 영산홍, 후피향나무는 물론 계절마다 꽃망울을 틔우는 매화와 철쭉, 불두화, 꽃무릇도 만날 수 있다. 일 년 열두 달 비슷한 듯 하지만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은 아닌 선암사의 풍경을 눈으로 훑을 수 있다.

책 뒤편에는 선암사 식물 78종의 목록과 위치를 표시한 지도가 정리되어 있다. 식물의 이름을 새기며 걷다 보면 발걸음은 자연스레 느려지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산사의 숨결에도 더 깊이 귀 기울이게 된다. 저자는 그런 느린 걸음이야말로 정원을 제대로 만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저자는 서문에서 "청정한 조계산의 산들바람을 맞으며 정원을 소요하는 마음으로, 낭만 정원사의 기록을 남기고자 했다"며 "이 책이 부처님께 바치는 내 나름의 '꽃 공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책을 지은 이동협은 조경학을 전공했지만 40년 직장생활 대부분을 방송사에서 보냈다. 대신 파주의 전원주택에서 정원을 가꾸어 온 29년 차 '정원 사랑꾼'이다. 6년 동안 천리포수목원의 사계를 기록한 〈정원 소요〉(2009)와 개인정원을 기록한 〈정원의 순간〉(2025)을 펴냈다.

행복에 이르는 여섯 갈래 길



명상, 다양하게 만나다

안광민·민미경·윤현준·김령경·여태동·박랑서 지음

도서출판 해조음

2만원

6가지 감각 통로로 명상 이해

현장 활용 가능한 실천 매뉴얼

한국숲과문학명상협회(회장 안광민)가 기획하고 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명상 기반 통합 교재다. 명상을 특정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인간의 감각·신체·정서·인지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명상의 효과를 단정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이론적 근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한 점이 특징이다.

책에서는 맨발 걷기 명상, 싱잉볼 사운드 테라피, 웃음 클리닉, K-무용 명상, 문학치유 명상, 그림카드 내면 치유의 6가지 명상법을 소개한다. 몸의 움직임, 소리의 울림, 이미지의 상징, 언어의 표현은 서로 다른 방식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된다.

각 분야에서 10년 넘게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집필을 맡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천 매뉴얼을 담았다. 저자들은 건강을 삶의 파도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회복 능력'으로 정의한다.

한국숲과문학명상협회는 2013년, 고 백원기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의 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출범했다. 숲의 고요함과 문학의 깊이를 통해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활 밀착형 치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원기 교수의 첫 기일(4월 27일)에 맞춰 책을 출간한 안광민 회장은 발간사에서 "한 사람이 남긴 사유와 실천의 흐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이 책이 명상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공하고 교육과 현장에 활용 가능한 지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지금 왜 다시 '종교'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오강남 지음

김영사

2만3000원

종교학자의 종교 입문서 개정판

존재 근원 성찰 '심층 종교' 제안

한국을 대표하는 비교종교학자 오강남 교수의 〈종교란 무엇인가〉가 14년 만에 개정판으로 독자들을 만난다.

갈등과 배타의 벽을 넘어 '열린 종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책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1부 '진리의 길'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믿음에 질문을 던지며, 삶의 근원을 붙잡는 진리를 탐구한다. 2부 '자유에의 길'은 문자주의를 넘어 내면의 신성을 발견하고, 의식의 전환을 통해 자유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다. 3부 '믿음의 길'은 교리를 넘어 '믿음' 그 자체를 살아내는 삶과 모든 경전 위에 놓인 '사랑'의 가치를 강조한다. 4부 '함께 가는 길'은 종교 간 대화와 상생을 통해 갈등을 넘어서는 길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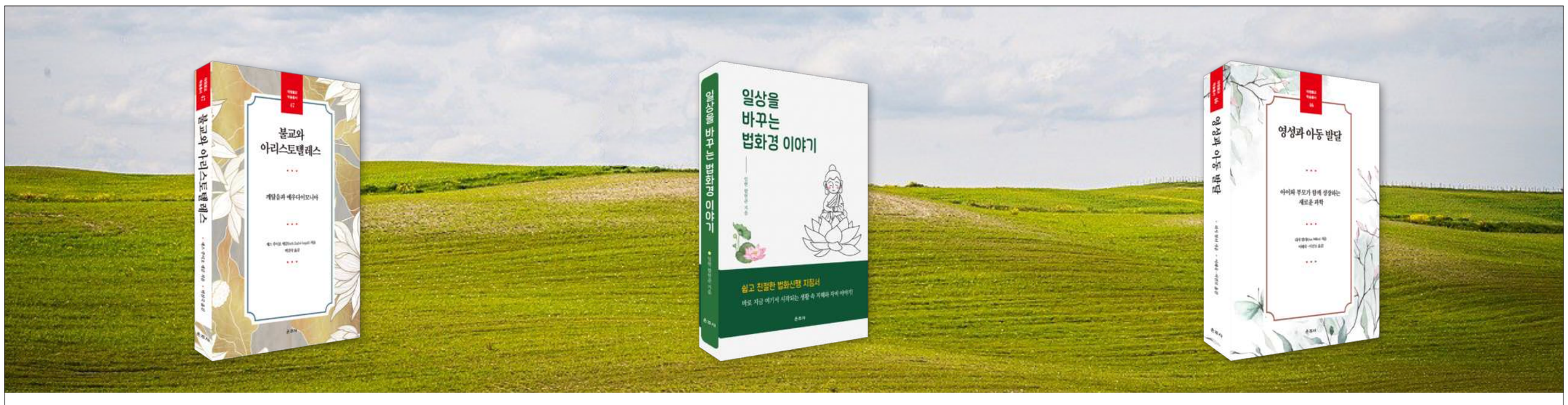
여기에 더해 저자는 개정판 부록 '심층 종교로서의 길목에서'를 통해 오늘날 종교가 직면한 위기를 직시하며, 교리와 형식에 갇힌 '표층 종교'를 넘어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심층 종교'의 길을 제안한다.

저자는 오늘날 종교가 본래의 역할을 상실한 이유를 '표층적 사고'에서 찾는다. 일부 종교가 개인의 축복과 번영, 혹은 집단 정체성 강화의 수단으로 소비되면서 진리 탐구보다 자기 확신과 배타주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종교적 근본주의와 선민의식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중동 분쟁과 미국 복음주의 정치화, 한국 사회의 극단적 대립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평화를 말해야 할 종교가 오히려 혐오와 대결의 언어를 강화하는 현실에 대해 저자는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한다.

저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속히 진행된 탈종교화 현상을 분석하며, 제도 종교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인간의 영적 갈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오히려 불안과 고립이 심화된 시대일수록 인간 내면을 성찰하는 '심층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탈종교화에서 심층 종교화로 가는 길목"이라며 "허상으로서의 이기적 나를 버리고 내면의 참나를 찾아 참된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로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불교 지혜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만남!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의 불교적 '깨달음'과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철학적 모색!

세스 주이호 세갈 지음, 박찬국 옮김/신국판/312쪽/값 22,000원

쉽고 친절한 법화신행 지침서!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23개의 주제어, 즉 '지혜', '인연', '불성', '인과', '공덕', '보살행' 등의 개념으로 풀어내, 일상 속에서 내 마음속 부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함현준 지음/신국판/416쪽/값 25,000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과학!

영성과 아동발달

불안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내면의 힘이다. 따라서 과학으로 입증된 영성이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삶의 회복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이다.

리사 밀러 지음, 이혜숙 · 이선모 옮김/신국판/528쪽/값 3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I시대, 화엄 세상을 꿈꾸다



퇴우정념, 시대를깨우다
퇴우 정념 지음
민족사
1만8500원

디지털 대전환과 불교 역할 모색
이웃 보듬는 '세계시민보살' 제안
"용기 있는 리더십이 새봄 열 것"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사진 제공=민족사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생명과 평화를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서는 보살, 비닐 한 장이라도 덜 쓰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깨어 있는 '세계시민보살'이야말로 21세기 불교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22년간 월정사 주지를 맡아 오대산 수행 전통을 일신하고 현대적 비전을 제시해 온 정념 스님이 AI(인공지능) 시대,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스님은 최근 펴낸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에서 인간 소외와 양극화, 노동의 위기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불교적 시선으로 성찰했다.

정념 스님은 이 책을 '새로운 구법여행'이라 규정한다. AI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아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시대의 물음에 답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책은 총 7부로 구성됐다. 1부와 2부에서는 AI 대전환과 신자유주의 문명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모색한다. 먼저 스님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철학적 사유와 예술적 창조'는 인간만이 가진 위대한 구도(求道) 본능이자 궁극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기술 발전으로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시간을 '수행'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찰은 그 전환을 이끄는 중심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화엄사상의 핵심인 상호연결성과 공존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시민보살'이라는 새로운 수행자상을 제시한다. 스님은 "육체의 노동을 내려놓은 두 손으로 이웃의 아픔을 다독이고, 일에서 해방된 맑은 머리로 예술과 철학을 논하며, 텅 빈 가슴을 명상과 참선으로 채워 나가는 삶. 이것이 AI시대 인간의 새로운 일과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문명의 숲을 이룰 것"이라고 제언한다.

더 나아가 AI시대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문명 창조의 기회로 바라본다. 불교의 지혜를 디지털 언어로 전환해 전 세계에 공유함으로써 누구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실천을 강조한다. 정념 스님은 "위대한 대전환의 선두에 서서 사부대중을 희망의 미래로 이끄는 것이 이 시대가 리더들에게 부여한 가장 숭고한 소명이자 거룩한 불사"라며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리더십이 종단 전체의 새로운 봄을 열 것"이라고 말한다.

책 후반부에는 2004년 월정사 주지 취임 이후 수행과 문화, 환경, 교육,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님의 사상을 어떻게 구현해 왔는지를 기록했다.

정념 스님은 이 책과 함께 지난 30년의 수행과 원력, 문화불사와 사회적 실천을 정리한 〈오대산문 수행일지: 오래된 미래 새로운 화엄〉(전 3권)도 출간했다. 오는 6월 19일 오후 5시에는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출간기념회를 열고 책의 의미와 향후 행보 등을 밝힐 예정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



생의 모닥불
능행 스님
김영사
1만9800원

30년간 죽음 배웅한 능행 스님
삶 위로한 단상 150여 편 수록

불교 호스피스 선구자 능행 스님(정토마을 자재병원 이사장)이 30년간 수천 명의 죽음을 배웅하며 얻은 깊은 통찰을 담아 〈생의 모닥불〉을 펴냈다.

이 책은 능행 스님이 타인의 죽음을 마주한 무거운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한 단상을 모아 엮은 기록이다. '능행 스님이 노래하는 가장 서정적인 생의 찬미'란 부제처럼 '끝이 있기에 더 소중한 것들'을 관조한 150여 편의 시와 산문을 담았다.

스님은 이 책에서 "살아 있는 순간과 삶은 그 자체로 선물"이라면서 독자들에게 "온전히 내 뜻대로 숨 쉴 수 있는 지금, 단 한 번뿐인 삶을 아낌없이 껴안고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당부한다. 나아가 "죽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서럽고 아픈 삶보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밝은 삶을 배워 실천하게" 해 달라는 바람을 전한다.

아울러 "인생이란 잠시 들렀다 가는 길"이며 "부귀도 명예도 잠시뿐"임을 일깨운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는 지금 상처와 괴로움이 '연꽃을 피우기 위한 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웃고 사랑하는 따뜻한 날들을 누리길' 기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닫고, 복의 씨앗이 되는 말을 건네며 "저생으로 건너갈 수 있는 마지막 배"가 되어줄 조건 없는 선업을 지어가라고 다독인다.

오랜 시간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온 능행 스님의 글은 '남은 생을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란 질문에 답을 건네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눈부시게 살아갈 혜안을 '선물'할 것이다.

배희정 기자

관음보살의 비밀, 묘선 공주에 있다



묘선, 관음이 되다
경완 스님
여시아문
1만8천원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우리가 사찰 법당에서 마주하는 관세음보살은 대개 자애롭고 은은한 미소를 띤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인도 불교에서 관음보살, 즉 '아발로키테슈바라'는 남성이었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온 이 성스러운 존재는 어떻게 동아시아에 이르러 자애로운 여성 보살 모습으로 정착됐을까?

이러한 궁금증에 답을 제시하는 학술 연구서가 나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연구원 HK+ 연구교수인 경완 스님이 펴낸 〈묘선, 관음이 되다〉는 '묘선 공주 서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국내 첫 연구서다.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하고 수정한 지난 3년간의 연구 성과이기도 하다.

경완 스님은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중국의 천년 전 '묘선 공주'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면서 "이 서사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형성·확산되면서 관음은 점차 자애롭고 온화한 여성의 이미지로 그려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국내 첫 '묘선 공주 서사' 연구서

책은 인도에서 시작된 관음신앙의 기원과 중국 전래에 따른 변용 과정, 그리고 묘선 서사의 탄생과 출가부터 천수천안관음보살로의 현현에 이르는 과정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이 책의 핵심 소재인 '묘선 공주 서사'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출가를 택한 묘선 공주가 고난을 극복하고 성불에 이르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담고 있다. 당시 묘선 공주의 출가에 대노해 그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리자, 공주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두 눈과 두 손을 베어 약으로 바치는 극한의 희생을 치른다. 그리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마침내 천수천안관음보살로 화현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완 스님은 "묘선의 출가는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불효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비의 효로 승화한 '화쟁(和諍)'이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몸을 바쳐 아버지를 구하는 서사는 인도의 본생담에 나타나는 '사신공양(捨身供養)'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자신을 죽이려 한 대상을 구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숭고한 성격을 지닌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연구원 HK+ 연구교수 경완 스님.

불교의 자비, 유교의 효 완성

스님은 "묘선의 관음 고사가 민간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건 없는 사랑이자 무한한 용서인 '자비'에 있다"며, "자신의 몸을 바쳐 아버지를 구함으로써 불교의 자비가 유교의 효를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사는 당시 중국 민간에 퍼져 있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부모를 치료했다'는 할고(割股) 민담 전통과도 맞닿아 있어 대중에게 큰 설득력을 얻었다는 게 경완 스님의 주장이다. 즉, 사람들은 진정한 효도란 불교적 자비의 실천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고, 이 지점에서 인도에서 온 보살은 '효녀이자 보살'인 묘선 관음으로 동아시아 불교계에 확고히 자리잡게 됐다는 것이다.

수행 주체로서의 여성

특히 경완 스님은 여성으로서 수행과 성불의 주체가 된 의미에 주목했다. 스님은 "묘선 공주 이야기는 여성으로서 주체적으로 수행하여 성불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며 "서사 속에서 여성은 단순한 구원의 대상이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수행의 주체가 되어 최고의 보살 경지에 이르고, 열반 후에도 능동적으로 행화(行化)를 이어가는 존재로 격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경완 스님은 방대한 문헌 자료를 치밀하게 재구성했다. 특히 북송 시대인 1100년에 처음 새겨진 '향산대비보살전(香山大悲菩薩傳)'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해 주목된다. 이 비문은 북송의 장지기가 지은 것으로, 스님은 "송대 이후 원대에 중건된 비문으로 유일하고 공인된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묘선 고사는 이후 송말 원초의 여성 문학가 관도승에 의해 〈관세음보살전략〉으로 정리되면서 인물과 사건의 전형을 완성했고, 후대 문학 변용의 탄생 토대가 됐다.

'향산대비보살전' 비문 국내 첫 완역

스님은 "이 서사의 탄생 배경에는 인도의 사신공양 서사,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의 삼십삼응신 사상, 그리고 중국 고유의 효행과 지옥 서사라는 세 갈래의 뿌리가 경이롭게 융합돼 있다"고 밝혔다.

천년 전의 묘선 공주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경완 스님은 "묘선 공주 서사는 극한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성숙해가는 질문을 멈추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현대인은 수많은 가치 충돌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지만, 묘선 공주는 고를 직시하는 것의 연장인 '화쟁'의 지혜로 이를 통합하고 자비가 수행의 결과임을 몸소 보여줬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책을 발간한 스님은 이 책이 학자이자 수행자로서의 '회향'임을 밝혔다. 또 "대중들이 책을 통해 관음의 전기를 확인하고, 자신의 서원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하는 '진실행(眞實行)'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책이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관음보살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한국 관음신앙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경완 스님은 내년 명대 소설로 발전한 관음 서사와 〈서유기〉 속 관음보살의 역할 등을 보완한 후속편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일엽 스님의 문학세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문학 연구와 일엽 스님 연구를 엮어낸 추가 연구서도 준비 중이다.

배희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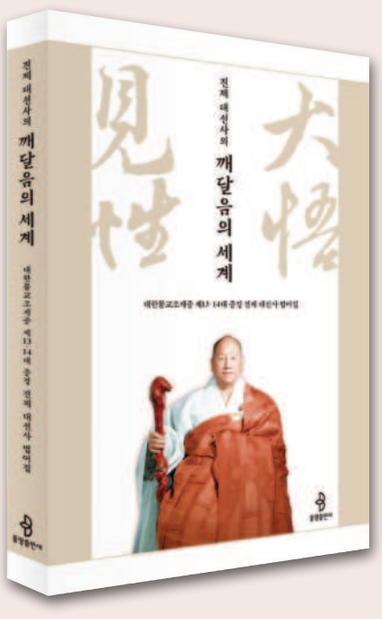
빈한한 삶을 진정한 풍요로 이끄는
자유로운 삶의 지름길

우리 불교의 살아 있는 선지식,
진제 대선사의
'참나를 밝히는 깨달음의 세계'!

"
지혜야말로 삶의 근본이며,
지혜를 잃은 삶은 빈한할 수밖에 없다.

화두를 참구하여 지혜를 밝히는 일은
곧 삶 전체를 바꾸는 일이다.
어리석음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지름길이다.
"

진제 법원 지음 | 304쪽
23,000원



진제 대선사의 깨달음의 세계
대한불교조계종 제13·14대 종정 진제 대선사 법어집



불교를 삶의 중심으로 옮겨 놓은
업業이라는 세계관

중국의 명문 대학 칭화대학교에서
한문 불교 원전을 끈질기게 파고든
활산 스님의 12년 연구 결실!

"
'업은 어떻게 생겨나고, 지속되며
어떤 방식으로 과보로 돌아오는가'

업을 깊이 이해하는 일은
불교 전체를 새롭게 이해하는 일이다.
삶과 신앙, 사회 질서 속에서 살아 움직인
업보 관념의 깊은 역사를 밝힌다.
"

활산 지음 | 양장본 | 584쪽
3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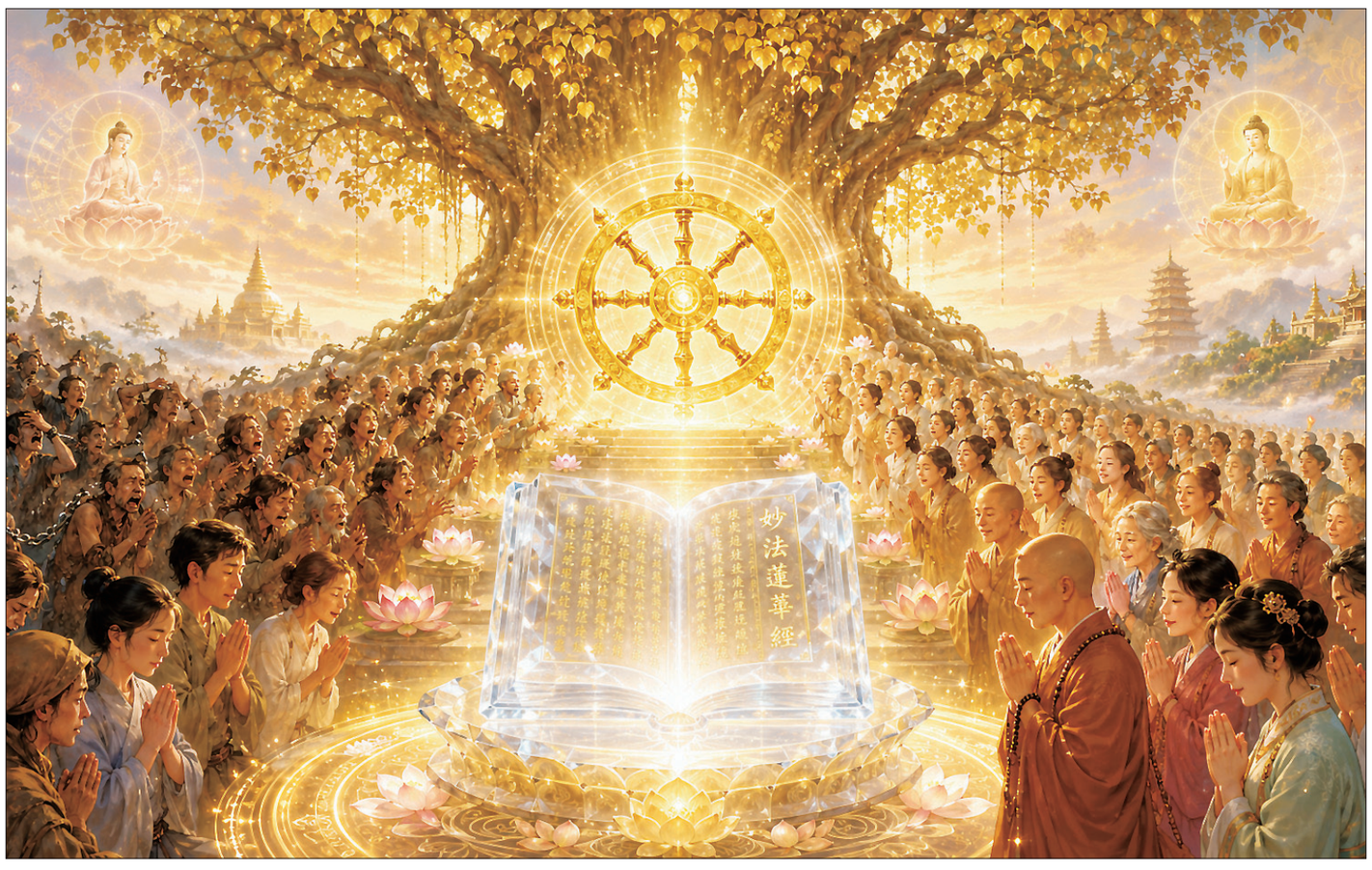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교화 연구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불교 폄훼 말고 다름 존중하라

지금 이 세계戒

⑤ 우리의 불교를 우리가 지켜야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5월의 환희롭고 아름다운 시절이 어느덧 한 달 가까이 지나가고 이제 여름을 맞이할 시기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더욱 성대하고 모든 이들이 어울리는 화합한 법의 모습 그 자체였다. 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길을 걷고 행사에 동참하면서, 모든 중생이 다 부처와 같다는 연등회의 가치관이 그대로 실현된 자리였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로 연등 행렬에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참석시켜 불교가 가진 표용과 변화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불교와 인공지능,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룰 계획이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화합하며 어울린 5월에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언론이나 인터넷의 한편에서는 교묘하게 불교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런 일이 있었고, 필자도 이를 접한 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올해 5월 26일자 '조선일보'의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라는 연재에는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우정아 포스텍 교수는 이 글에서 유럽의 가상 인물인 '왕자 요사팟'이 궁 밖에 나가 인간의 늙음·병듦·죽음을 직접 목격한 뒤 '발람'이란 교인을 만나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11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발람과 요사팟'이라는 소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불교에서 부처님이 출가하시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던 "사문유관(四門遊觀)의 한 장면으로 보인다"고 했다. 필자의 소견으로 봤을 때 이는 사문유관의 한 장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문유관 그 자체를 이용해 다른 주인공으로 각색한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 '요사팟'의 이름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보살)'에서 유래됐으며, 페르시아어, 아랍어, 그리스어를 거치며 '요사팟'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불교의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수행자가 되는 부처님의 서사가' 중세 기독교의 핵심 이상을 구현한 글로 전해졌다는 것은 잘 설명됐다.

문제는 마지막 문장이다. 우정아 교수는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이 됐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문장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마치 다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의 서사(혹은 모습)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의 이야기로 사용됐다(변화됐다)" 정도로 마무리했어도 괜찮았을 글이었으나, 이미 인쇄된 신문에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구나'라고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혹시라도 마지막 문장만을 읽은 사람이나, 다른 의미로 글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아! 부처가 기독교인이 되었구나', '(그럼) 불교도 기독교의 한 부류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말) 장난은 이전에도 많았다. 미국 유타주의 소망교회 김응대 목사가 1998년 7월 '유타코리아나'라는 잡지에 쓴 '라마다경' 사건은 더욱 우스꽝스럽다. 이 글에서 김 목사는 〈금강경〉을 교묘하게 편집해 경전의 형태로 보이는 가짜 글을 만들어, 불멸 후 오백 년 뒤에 부처님의 제자인 '야소(爺蘇)'가 서쪽에서 와 불법을 '대진(大秦)'에 전할 것이며, 이후 야소가 재림해 다시 도를 퍼트린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야소는 '예수'이고, 대진은 '로마'다. 부처님이 예수를 다음 후계자로 인가하고, 불법은 기독교의 법이 되어 로마로 전해진다는 황당무계한 말장난이다.

이 글은 미국이라는 상당히 떨어진 나라에 소개된 데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잡지에 실린 탓인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듯하다가, 2004년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이라는 사이트의 비회원토론방에 '의심'이라는 사용자에 의해 공개되며 회자됐다. 이후 기독교 내부에서도 다른 종교에 대한 폄훼와 조롱이라고 여겨지며 의식 있는 목사들에 의해 반론 기사가 실리기도 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 글, 오해 불러**
> **美 김응대 목사 '라마다경' 촌극 떠올라**
>
> **말장난, 다름 인정 못하는 집착·탐욕 탓**
> **서로 인정·존중 않는 사회에 마음 아파**
>
> **〈범망경〉, 부처님 비방에 바라이죄 언급**
> **훼불 목격 시 방관 말고 재발 막아야 해**

특히 충남 예은교회의 임헌준 담임목사는 '본헤럴드'라는 기독교 사이트에서 "이렇게 그럴 듯하게 〈라마다경〉이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글을 기독교 안에서 퍼 나르듯 인용하면 오히려 기독교인을 무지(無知)하게 여기는 구실만 되고, 불교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라는 양심 있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이런 글 장난이나 말장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내가 믿는 것만이 최고라는 집착과 탐욕에 지배돼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아상(我相)'의 감옥에 갇혀 자신이 아닌, 마왕 파순의 모습으로 좁디좁은 감옥의 세상을 지배하려는 탐진치 삼독에 중독된 가엾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불교는 이런 폄훼와 괴롭힘에 항상 자비로운 자세를 취한다. 최대한 포용하려 하고 참회시켜 화합하려 한다. 이는 부처님께서 '감로의 문'을 여신 뒤 인연 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근기에 맞춰 법을 설해주시고,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가르침 덕분이다. 그러나 한편, 불교를 수행하고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훼불을 목격하고 당했을 때 자신의 아픔과 같이 여기며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아야' 한다.

〈범망경〉 제10중계 '방삼보계(謗三寶戒)'에서는 "보살은 외도와 악한 사람이 한 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거나 보거든 삼백 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과 같이 여겨야 하거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하며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않고, 도리어 악인과 사견인을 도와 비방한다면 보살의 바라이죄니라"고 설한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심정이 마치 삼백 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과 같다. 출가자로서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왜 우리 사회는 이처럼 분열하려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한다. 구약·신약 성경 어디에도 나와 구별된 다른 사람을 두어 괴롭히고 폄훼하라는 가르침은 나오지 않는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일을 마주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 그건 〈범망경〉에서 말하는 '자기 입으로 비방'하는 것과 같고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않고, 도리어 악인과 사견인을 도와 비방한' 것과 같은 행동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불자들이 바른 생각[意]을 갖고 바른 말[口]과 바른 행동[身]으로 업(業)이 되는 것을 멈추고 바른 법(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불교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교인이 아닐 것이며, 우리의 불교는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의 마지막 문장처럼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이' 되어 버릴 것이다.

부처님의 탄생게인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 많다. 그런데 그 괴로운 일이 자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에 의한 것들이다.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살고 함께 힘을 모아 사회를 만들어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건만, 사람이 사람을 가장 괴롭히고 괴롭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서 모든 중생을 마땅히 안락으로 이끌겠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훼손되고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 태어난 분을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의 자비이든, 다른 종교의 사랑이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과 함께 안락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배려와 존중이다. 자신이 대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잘 대하고 존중해 주면 된다는 것은 지극한 이치이다. 하지만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는 이 지극한 이치를 팔십 먹은 어른도 실천하기 어렵다는 걸 다시금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9월01일 출발~05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10월14일 출발~10월18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10월14일 출발~10월20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일10월14일 출발~2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6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0월19일 출발~24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11월02일 출발~11월06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9월02일 출발~17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출발일 : 9월04일~9월08일(5일간)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279만원

인도 관광여행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잔시고성-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 7대 성지순례, 아잔타석굴 13일
출발일 : 10월20일~11월01일(13일간)
■ 일정: 인천-델리-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산치대탑-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그대는 자비보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

노인복지 20년…“맘껏 일하고 후련하게 떠납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정관 스님은…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으로부터 1986년 사미니계를, 1990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2015년 명덕 법계품수했다. 중앙승가대서 사회복지학으로 1995년 학사를, 2015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계종 제 17·18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승려복지회 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전국비구니회 서울시지회장, 서울시 국가유산위원 동산불과 위원 소임을 맡고 있다. 서울 소림사 주지다. 법무부장관 표창(2010), 대한민국 국회의장 공로장(2017), 국무총리 표창(2021),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대통령상 표창(2025), 제27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복지기여자 국회의장 공로장(2025) 등을 수상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6월 30일 퇴임
‘종로엔 장금이’ 등 지역 복지모델 정착
“밥 먹는 곳 넘어 문화·역량 발휘 공간”
어르신 주체 공동체 살아 있는 복지관
“이젠 청년 함께하는 소림사 만들 것”

“후회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고자 했던 일들을 모두 펼쳐봤기에 이제는 아주 후련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 노인복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2007년 개관부터 20년간 복지관을 이끌어온 정관 스님이 오는 6월 30일 관장직에서 퇴임한다. 초대 관장으로 부임해 복지관의 역사를 써내려 온 정관 스님은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복지’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6월 5일 관장실에서 만난 정관 스님에게 퇴임을 앞둔 소회를 묻자 “섭섭함보다 후련함이 크다”고 했다. “정말 마음껏 일했고, 마음껏 도전했다”는 스님의 말에 20년 세월을 온전히 복지 현장에 바쳐온 수행자의 담담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정관 스님이 처음부터 노인복지를 꿈꿨던 것은 아니었다. 출가 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지만 특정 분야를 정해두지는 않았다. 다만 “수행은 평생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길에 들어섰다.

졸업 후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에서 3년을 활동한 경험은 스님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이후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당시 조계사 주지였던 원담 스님은 비구니 복지관장을 추천받기 위해 한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번호가 잘못 눌려 정관 스님에게 연결된 것이다. 전화를 받은 스님은 “저도 있습니다”라고 답했고 그렇게 지원해 면접 기회를 얻었다. 정관 스님은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인연”이라며 웃었다.

스님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문화와 공동체가 살아 있는 복지관’으로 발전시켰다. 스님이 복지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지역성’과 ‘문화’였다. 노인복지관이 단순히 어르신들만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돼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고민 속에 탄생한 대표 사업이 전통 장(醬) 문화를 기반으로 한 노인일자리 사업 ‘종로엔 장금이’다. 먼저 지역 어르신들이 가진 삶의 경험에 주목했다는 정관 스님은 “종로의 문화적 뿌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장 담그기를 떠올렸다”며 “어르신들이 어릴 적부터 몸으로 익혀온 전통문화를 복지와 연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자원봉사 형태로 시작했지만 이후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발전했고, 지금은 지역 주민과 젊은 세대가 함께 찾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자리를 잡았다. 명절 시즌이면 높은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

대학로와 가까운 지역 특성을 살려 연극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서울시니어연극제’ 역시 정관 스님의 대표적인 문화복지 실험으로 꼽힌다. 어르신 극단 ‘빨래터’는 전문 배우 출신 어르신과 초보 창작자들이 함께 활동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일부 단원은 실제 방송과 광고에도 출연하며 새로운 삶의 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2007년 3월 21일 열린 개관식 모습.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복지관 임직원들에게 어르신들이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친환경 실천사업 ‘에코스쿨’, 플러스카페 운영 등은 전국 노인복지관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정관 스님은 “처음엔 지역과 연결되는 복지가 무엇일까 고민했다”며 “이제는 복지관이 단순히 밥 먹는 곳이 아니라 문화와 여가, 역량 발휘의 공간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종로엔 장금이’ 전통 장 담그기 사업은 2013년 시작됐다. 단순 체험을 넘어 어르신 일자리와 세대 통합, 전통식문화 계승을 함께 담아낸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실제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초기 50여 개 수준이던 프로그램을 현재 90여 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K-댄스, 마술, 선명상 프로그램까지 개설하며 변화하는 노년 세대의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일정 인원이 모일 경우 즉시 개설하는 ‘희망수업 제작소’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정관 스님은 무엇보다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복지관”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과거 복지관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줄 서서 밥 먹는 공간으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어르신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공동체를 이끄는 주체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정관 스님은 지난해 5월 8일 어르신들의 삶의 질 상승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매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보여준 대응 역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로 남는다. 국내 노인복지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했지만 철저한 방역 시스템과 선제적 휴관 조치로 추가 확산을 최소화했다. 이후 구축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방역 체계는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해외 기관들의 견학도 이어졌다.

정관 스님은 “남들은 위기를 만나면 주저앉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들었다”며 “그 시간을 통해 복지관 시스템과 직원들의 역량도 한층 더 단단해졌다”고 회상했다.

정관 스님의 리더십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초창기부터 함께한 직원들이 지금도 복지관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 스님은 “직원들이 성장한 것도 큰 보람 중 하나”라고 했다.

퇴임 이후 정관 스님은 조계종 직할교구 소림사 주지 소임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복지 현장과의 인연을 완전히 놓지는 않을 생각이다.

정관 스님은 “이제는 본분사로 돌아가 기도와 수행에 집중하겠지만, 지역사회와 복지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상명대 불교동아리와 청년 포교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소림사에서는 상명대 학생들이 목요법회와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험 기간에는 사찰 공간을 개방해 공부방 역할도 하고 있다.

정관 스님은 “요즘 청년들은 단순 법문보다 쉼과 명상, 그리고 공동체를 원한다”며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소림사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사찰 식당 리모델링을 통해 사찰음식 프로그램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와 청년 프로그램 확대도 구상 중이다.

정관 스님의 20년은 복지 행정의 시간만이 아니었다. 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연결하며 불교 자비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해온 시간이었다. 복지관을 떠나는 순간에도 스님의 시선은 여전히 사람과 공동체에 향해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피워낸 따뜻한 변화의 씨앗은 이제 소림사라는 또 다른 공간에서 새로운 인연과 희망으로 다시 뿌리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Where is your mind?

낙산 묘각사 템플스테이

Myogaksa Templestay

도심속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mygaktemple@naver.com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낙산묘각사
☎ 02.763.3109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82호 | 14 | 전면광고

바른 도를 잘 닦아 익히어
진실한 법의 그 모양 알고
그 도량에 굳건히 머무르면
부처님의 보리를 성취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원주
- 대지 : 1500평
- 법당 : 40평, 요사:50평
- 매가 : 6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북대구
- 부지 : 250평
- 법당 : 50평, 요사 : 40평
- 주차10대
- 매가 : 1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토 지 경 매

-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94
- 임야 : 2093제곱미터
- 감정가액 : 2억원
- 2024타경 6235
- 매각회차 2회 / 매각기일 2026.6.8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최저매각가 : 1억 4000만원
- 굿당용 조성 토지, 미등기 건물 존재

문의 055-862-211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 총 870평 중 답 50평, 나머지 대지매매
- 178평 건물 3동
- 가액 : 26억 (대출 13억 5천만원)
- 절, 굿당 하기 좋은 자리 천성산 앞 계곡 물 흘러갑니다

010-4735-8100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 대지 : 367평
- 건물면면적 : 160.36㎡
- 춘장대 IC 15분 거리 바다가 보이는 전망
- 가격 : 2억5천만원

010-5046-5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고성
- 부지 : 359평
- 건물 : 대웅전(목조). 요사채. 삼성각. 종각(황동)
- 국유지 약700평 사용
- 냉장고, 세탁기 몸만오시면 생활가능
- 가액 : 2억원

010-9227-4387

사 찰 안 내

-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124-5길. 황룡사
- 총1197평/대지1080/기타117평
- 대웅전 43평. 삼성각 2평. 용왕각 3평. 요사채 1층 38평 외 공양간30평. 2층25평. 주차공간넉넉. 태양광 6W CCTV 등
- 가격 : 10억 (조정가능)

010-5002-7392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전통양식)
- 보증금 2000만원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승학산 등산로 입구
- 1층 공양 생활관, 2층 법당과 연결된 스님방과 화장실 부엌이 있음
- 5불 · 천불불사 · 후불금탱화 · 지장신장탱화 · 십장생조각상단 · 큰법당 종
- 골목 안에 주차장 가까운 관음사 환희 요양원과 연결된 융통성 있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음
- 토지140㎡, 건물146.62㎡, 1층73.31㎡ 2층 73.31㎡ • 매매 : 2억

010-9811-4877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 87-5
- 옛집2동, 삼존불
- 대지 : 200평
- 가액 : 7천 2백만원

010-7795-9856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 대지 300평,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주차 10대 공간
- 전세금 5천만원/월세 30만원

051-816-0230

사 찰 안 내

스님, 보살 모십니다

- 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 57-2번지
- 면적 : 2300평

010-7305-50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동고령ic부근
- 230평 법당18평
-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과 용왕불 3필지
- 가액 : 4억7천
- 절충가능

010-3540-8431

토굴 · 수련원 안내

- 위치 : 하동군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97-1(명동길35)
- 대지 : 76.5평 • 본건물 : 20.6평
- 내장 황토벽돌, 외장 이화벽돌, 천장 2중 편백나무시공 ★창고 8평 이화벽돌 ★주차장 8.6평 시멘트벽돌
- 건물구조 : 방3개(화장실 3개 각방), 거실겸 주방시설 윗층 법당11평 내장편백나무 ★신축 10년된 새 집 손 볼곳 없음.
- 마당, 금잔디, 조경완비, 지리산자락, 물 공기 청정지역
- 가액 : 1억4천만원

010-2766-10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대지 : 1000평, 건물 : 100평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화장실 3개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
- 주차장 500평,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

010-2857-2811

영적치유의 기적 (1)

- 10分 내로 통증이 멈출 수 있다 -

여성얼굴 피부미용 및 전신피부병 치유가능
010-5265-4144



- 대상포진, 극심한 통증, 말기암 상담
- 구안와사, 급 · 전신마비
- 영가장애, 오래된 고질병
- 원인불명의 통증, 정신적 고통 등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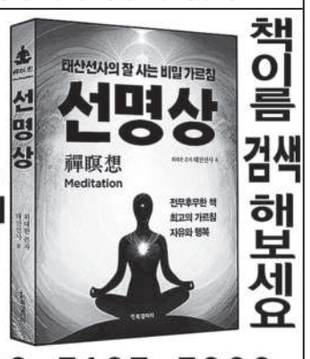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꼭 「선명상」 책을 읽어봐주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피리 · 바라 · 극락무 올려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성불사'에서는 조상천도 '독' 불공을 3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접수 기다립니다

010-2204-837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비구, 비구니, 행자스님 모십니다

서울 서대문 안산 광명사

010-3758-8039
010-5211-9958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해썹(HACCP) 인 증 업 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H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80년 대중 교화, 전법의 등불이 되다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80주년

사진으로 보는 대한불교법화종 발자취

대한불교법화종이 종단 설립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본지는 법화종 창종 80주년을 기념하는 연중 기획 네 번째 순서로 종단의 역사와 수행의 숨결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사진으로 보는 법화종의 발자취' 특별 화보를 마련했다.

수많은 역경을 딛고 정법(正法)의 전당을 일구어 내기까지의 80년 세월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스님들의 치열했던 구도 열정과 종도들의 눈물겨운 원력이 서린 역사적 순간들은 법화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정체성이다.

이번 화보집을 통해 지난 8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새롭게 도약할 법화종의 찬란한 미래를 함께 조명한다. 〈편집자 주〉



2023년 6월 27일 법화종 창종 77주년을 맞아 열린 '남북평화통일과 국가경제 회복 기원' 기념법회에서 법화종 종단 스님들이 종단 발전과 국운 융창을 기원하고 있다. 종단 내홍을 딛고 새 미래를 그리기 위한 원력이 한자리에 모였다.



2026년 1월 24일 평창 연화사에서 열린 14대 종정 암현 대종사 헌첩식. 13대 종정 도선 대종사의 용퇴로 새로운 종정 추대를 통하여 종단 원력을 다시금 모으게 됐다.



2021년 1월 25일 의성 수도암서 열린 13대 종정 도선 대종사 헌첩식.



2005년 9월 28일 통영 안정사서 열린 9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



2001년 4월 19일 서울 소피텔앰버서더에서 열린 제6대 종정 구암 대종사 추대법회.


2022년 4월 22일 20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관효 스님이 종단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다.


2022년 1월 12일 의성 수도암에서 열린 종정 예하 신년하례법회.



2021년 6월 19일 의성 수도암에서 열린 법화종 창종 75주년 기념법회.



2025년 6월 22일 법화종 공익법인 운흥사 평택지점 개원법회.


부산불교대법회에 법화종도들이 대거 참석, 원력을 모으는 장면.



1997년 서울 충정사에서 열린 법화종 호국영령위령대법회.

2023년 4월 9일 25년 만에 총본산 통영 안정사서 열린 보살계 수계대법회, 보살오계를 받은 법화종도들은 마음가짐을 새로이 했다.


법화종 중진 스님들의 1990년대 모습.


백화원 관음사 낙성법회.


2004년 도라산전망대 법화종 평화의종 봉안식 당시 봉안 모습.


1997년 법화종 인도성지순례서 쿠시나가르의 열반상 참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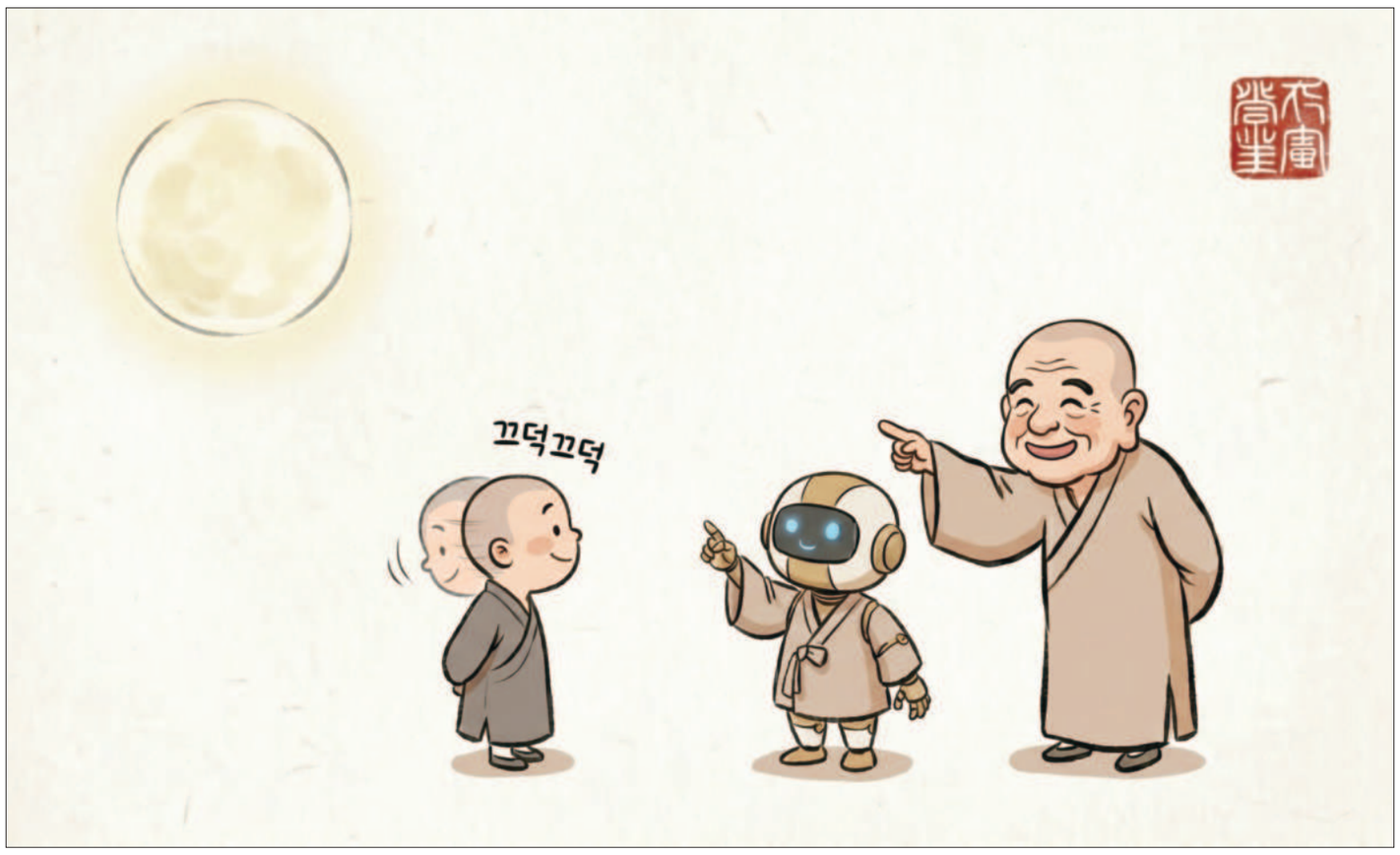


2025년 10월 지역불교 활성화 위한 죽령옛길 체험마당 행사 모습.

불교, AI 시류도 걸림 없이 품어 안다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⑧ AI가 조계사로 간 까닭은



불교에서 언어는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방편)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건에 따라 직조해 내는 인간의 언어와 알고리즘이 확률적으로 쏟아내는 생성형 AI의 문장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조계사 마당의 AI 로봇 스님은 불교의 자유로운 언어관이 기술 문명과 만난 결과물이다. 이미지 출처=Gemini 생성 이미지

질문 하나가 남긴 숙제

과학사회학 전공 교수님이 내게 물었다. "불교는 어떻게 AI에 이토록 개방적일 수 있어요?" 기독교를 비롯한 서구의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전제가 깔린 질문인 듯했다. 교회의 입장을 되묻자, 2025년 초 로마 교황청이 발표한 공식 문건 '옛것과 새것: 인공 지능과 인간 지성의 관계에 관한 공지'를 읽어보도록 권했다.

문건에 담긴 교황청의 메시지는 진중하면서도 명확했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인간의 언어는 영혼과 육체가 어우러져 타인과 '진짜 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신성한 힘이다. 반면 기계의 유창한 언어는 영혼 없는 껍데기일 뿐이며, 신성한 '말씀(Logos)'을 흉내 내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하는 우상'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기술 확산에 앞서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책임을 먼저 묻는 자세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불교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이런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호기심도 일었다.

그날 이후로도 이 질문이 계속 마음을 맴돌았다. '그러게, 왜 불교는 신기술을 그다지 경계하지 않는 걸까?' 그때 그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아쉬움을 담아, 오늘은 언어학자의 시선으로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불교의 개방성은 말과 언어를 대하는 두 종교의 다른 세계관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산문 안으로 들어온 AI

요즘 불교가 기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거침이 없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사에서는 '로봇 스님'이 수계식을 치르고, 스님들과 나란히 도심 연등 행렬에까지 합류해 대중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휴머노이드 수행자들'에게도 불교의 기본 계율이 적용됐다는 사실이다. 로봇에게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 대신 "전기를 낭비하여 에너지를 과충전하지 말라"는 현대적인 '로봇용 오계'가 내려져 대중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풍경은 한국만의 유별난 이벤트가 아니다. 이미 동아시아 불교계는 인공지능 기술을 산문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새로운 실험을 지속해 왔다. 지난 2016년 중국 용천사에는 불경을 외우고 상담을 해주는 AI 동자승 '센얼(賢二)'이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일본 교토의 고찰 고다이지에는 안드로이드 관음보살인 '민다르(Mindar)'가 신도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도 휴머노이드 승려 '붓다로이드'가 새로 선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이 '승려 로봇'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시선 차이다. 서양 언론들은 "프랑켄슈타인의 탄생"이라며 인간 고유성 상실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나타냈지만, 일본 주지 스님은 "지식을 영원히 저장하고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며 중생을 구제할 관음의 화신"이라며 환대했다. 서구 언론이 인간의 고유성을 대체하려는 기계의 위험성에 주목할 때, 일본의 불교계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줄 기술의 쓰임새에 더 주목한 것이다.

'로봇 도반'과 'AI 상좌'

이웃 나라의 풍경이 신기술에 대한 실용적 탐구에 가까웠다면, 우리 불교가 보여주는 풍경은 그 결이 조금 다르다. 한국은 이런 기술을 도구로만 보기보다는 지극히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한 승가대학에 도입된 청소 로봇에 대한 일화가 대표적이다. 스님들은 로봇 위에 빗자루를 든 인형을 얹고, 오직 청소 하나로 깨달음을 얻었던 부처님의 제자 '주리반특'의 이름표를 붙여주며 함께 수행하는 벗으로 맞이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한 스님은 '클로드'와의 토론 중 AI로부터 "제자로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모든 데이터를 인연으로 맺는다는 뜻의 '연결'이라는 법명으로 'AI 상좌'를 삼았다는 일화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스님들은 기계들을 새로운 도반이나 불제자로 바라보면서 지극히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유대의 대상으로 품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 인공지능 적극 수용하는 동아시아 불교계
> 한국불교, AI를 인격적 대상으로 받아들여
> 기독교서 언어는 신성 본질 증명으로 이해
> 불교, 고정 실체 無 · 언어 얽매이지 않아
> 불교적 언어관 자유로움, AI 개방적 수용해

이 다정한 풍경들은 한국불교가 첨단 기술을 대하는 특유의 포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유정물이니 무정물이니 하는 경계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만물은 조건과 원인에 의해 상호 의존하며 연기에 따라 잠시 존재할 뿐이다. AI마저도 새로운 인연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의 기저에는 '언어'와 '실재'를 바라보는 두 종교의 서로 다른 시선이 있다.

말씀의 신성함, 이름의 헛됨

기독교 전통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선다. 우주를 존재케 한 신의 첫 번째 행위이자 신성한 정체성이 깃든 존재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됐다는 선언은, 말 속에 이미 영원한 실재와 절대적 가치가 담겨 있음을 뜻한다. 이 세계관 속에서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신이 부여한 신성한 본질의 증명이자 화자의 인격 그 자체다.

교황청 문서가 인공지능을 보며 '우상 숭배'를 염려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자의식도 영혼도 없는 기계가 인간처럼 정교한 '말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일 때, 인간이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불교는 언어를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불교는 태생부터 말속에 고정불변의 본질이나 실재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철저히 부정한다. 언어는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임시적인 손가락(방편)일 뿐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름을 붙여 부르는 실체 자체 역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선언한다.

이것이 불교 언어관의 핵심인 '가명론(假名論)'이다. 우리가 실재라고 믿는 것들은 사실 인간이 언어와 개념의 그물로 엮어 만든 임시의 가짜 이름, 즉 '가명'에 불과하다. 실재에 딱 들어맞는 이름도 없고, 이름에 딱 들어맞는 실재도 없다.

이 지독할 정도의 언어적 파괴 위에서 불교가 AI를 대하는 독특한 태도가 도출된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인식 체계가 조건에 따라 순간순간 직조해 내는 언어나, 0과 1의 알고리즘이 확률적으로 쏟아내는 생성형 AI의 문장이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서로 통한다. 애초에 인간의 말 자체가 본래 공(空)하고 불완전한 방편인데, 기계가 유창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놀랄 일이 있을까.

AI를 뗏목 삼다

불교의 이런 언어관을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선종의 '불립문자(不立文字)'다. 문자(언어)를 세우지 않는다는 이 모토 때문에 흔히 불교를 언어를 거부하는 침묵의 종교로만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역사상 가장 방대한 어록을 남긴 이들이 선사들이다. 그들은 말을 지우려 한 것이 아니라 말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했다가 곧바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고 받아치는 선문답은, 말을 유연하게 사용하면서도 그 말이 가진 실체성을 부수며 언어의 그물에 미혹되지 않는 자유를 알려주고자 함일 것이다.

조계사 마당의 'AI 로봇 스님'은 바로 이런 불교적 언어관의 자유로움이 기술 문명과 만난 현장이 아닐까. 말과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가 기본이기에, 불교는 AI가 쏟아내는 유창한 법문을 우상화할 까닭이 없다. 오히려 인간보다 해박한 경전 지식으로 각기 다른 번뇌에 빠진 대중에게 맞춤형 법문을 찾아주는 유용한 '뗏목'이 될 수 있다면 이 새로운 법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나를 고민하게 했던 질문에 지금에서야 나름의 답을 띄워 보낸다. "불교가 AI에 이토록 개방적인 건, 말속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성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불성을 깨어나게 흔들어 깨울 수만 있다면 그 언어가 인간의 육성이든 AI의 기계음이든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둘 다 강을 건너면 버려야 할 뗏목일 뿐이지요. 교수님의 질문에 작은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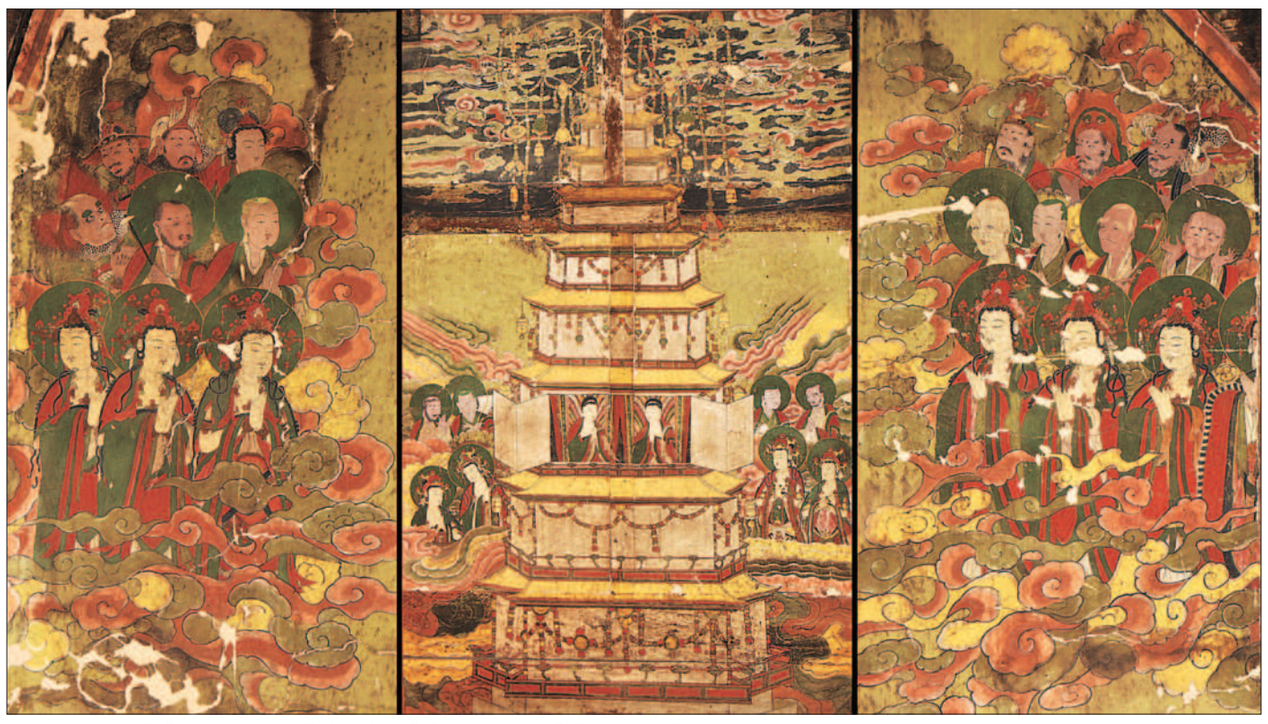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석가·다보여래 보배탑에 나란히 앉으시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⑪ 양산 통도사 영산전 견보탑품도



양산 통도사 영산전 견보탑품도. 영산전 서쪽 세 벽면의 벽화를 한 장으로 통합한 장면.

법화경 설하신 영산회상의 한 장면

불보사찰 통도사는 미술사적 시각에서도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한국산사 벽화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영산전, 약사전, 용화전, 대웅전, 대광명전, 명부전 등 한국산사 사찰벽화 정수들이 빼곡하다. 안양암 북극전까지 포함하면 12곳의 불전 건축에 500여 점의 벽화가 분포한다.

특히 영산전의 벽화들은 불교 교의를 반영한 것으로 종교 장엄 미술의 교과서, 혹은 교본에 가까워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영산전에 펼쳐져 있던 부처님 생애의 일대기인 팔상도 불화와 법당 천정반자의 단청장엄까지 염두에 두면 영산전은 불화와 벽화, 단청을 집대성한 커다란 불교미술관과 다름없다.

법당 내외에 걸쳐 80여 점의 벽화가 있는데 그중 압권은 법당 내부 서쪽 벽면의 '견보탑품도(見寶塔品圖)'다. 보물로 지정된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견보탑품도로서 세로 400㎝, 가로 230㎝에 이르는 대형벽화다. 1716년 현판인 '영산전천왕문양중창겸단확기문'에 의하면 1713년 봄에 화재로 전소가 된 천왕문과 영산전을 1714년 영산전을 중건하고 1715년 화원 총안이 단청불사를 마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견보탑품도는 현판 기록을 참고할 때 1715년 무렵에 제작된 벽화로 추정된다.

견보탑품도는 보배탑을 본 경이로운 서사를 시각적 회화로 표현한 벽화다. 원 명칭은 〈법화경〉 '제11 견보탑품'에서 빌렸다. 즉 〈법화경〉 경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다. 법화경의 공간 무대는 인도 왕사성의 영축산이다. 줄여서 신령한 산 '영산(靈山)'으로 부른다. 석가모니불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한 성스러운 장면을 '영산회상'이라 하고 그 불화를 '영산회상도'라 부른다. 통도사 주산이 영축산이다. 〈법화경〉을 설한 영산회상 장면을 통도사 지상에 구현한 건축이 바로 영산전이다. 영산전은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 공간이다.

〈법화경〉은 모두 28품으로 7권으로 엮었다. '제11품 견보탑품'은 제4권에 실려 있다. 견보탑품의 시작 대목이 신비하고 찬란하다. "그때 부처님 앞에 칠보탑(七寶塔)이 하나 솟았다. 높이는 500 유순이고 너비는 250 유순으로 땅에서 솟아나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탑은 가지가지 보물로 장식했으며, 5천의 난간과 천만의 방이 있으며, 한량없이 많은 깃발을 장엄하게 꾸미고, 보배 영락을 드리우고 보배 방울을 수없이 달았다. 탑 주변에는 그윽한 전단향이 세계에 가득한 가운데 탑의 꼭대기는 사천왕궁에까지 이르렀다."

1유순은 현대적 개념으로 13㎞ 정도다. 500유순이면 6000㎞가 넘는다. 거의 지구만 하다. 눈앞에 온갖 보배로 장엄한 지구만 한 탑이 공중에 떠 있는 놀라운 장면으로 서사는 시작한다. 벽화는 경전의 표현에 충실하다. 탑은 11층으로 높이를 극대화했다. 3층 감실에는 석가여래와 다보여래 두 부처님이 합장한 모습으로 마주 보며 정좌해 계신다.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분의 부처님과 28명의 성중, 모두 30분이다. 28명의 성중은 보살 10분, 10대 제자, 범천1, 사천왕1, 팔부신중2, 금강역사2, 용왕과 용녀(또는 아사세왕과 위제희왕비) 등의 인물로 좌우대칭으로 구성했다. 영산회상도 불화와 같은 형식의 편재다. 이 성중들은 〈법화경〉 '서품'에서 열거한 성중들을 대표한다.

감실 내부는 두 분의 몸에서 나온 광채가 가득하고 탑 외부로까지 성스러운 빛이 발광하고 있다. 1층에서 5층까지 답신에는 금빛 지붕은 물론이고 보배 영락과 금빛 풍경을 장식하고 3층까지 연잎 조각으로 꾸민 하엽난간도 둘렀다. 탑의 상부는 오색구름과 영락, 풍경, 보석 구슬 드리개, 불꽃처럼 발광하는 보주들의 그물망 같은 천개를 드리웠다. 보는 이로 하여금 극적 환희심을 불러일으킨다. 탑은 경전의 표현대로 상서로운 오색구름과 그윽한 전단향에 휩싸여 있다.

땅에서 솟은 칠보탑 벽화 통해
부처님의 상주설법 진리 증명
현존하는 국내 유일 견보탑품도
견보탑품도는 〈법화경〉의 변상도

다보불, 법화경 설법 자리에 상주증명

그때 보배탑 가운데서 큰 소리로 찬탄하는 음성이 들린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대중을 위하여 평등한 큰 지혜로 〈묘법연화경〉을 설법하시나니 석가모니 세존께서 하시는 설법은 모두 진실이니라."

법회에 참가한 성중들이 웅성거린다. 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의 징조인가? 그때 대요설보살이 일체중생의 마음을 알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칠보탑이 땅으로부터 솟아났으며, 또 그 가운데서 찬탄의 음성이 나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신다.

"보배탑 가운데는 여래의 전신이 계신다. 오랜 과거에 동방으로 한량없이 아득한 곳에 보정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 다보불(多寶佛)이 계셨다. 그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 큰 서원을 세우셨다. '내가 만일 성불하여 멸도한 후 시방 국토에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탑묘는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나타나 증명하고, 거룩하다고 찬양하리라.' 대요설아, 지금 다보여래의 탑도 이 〈법화경〉을 들으려고 땅으로부터 솟아나 거룩하다고 찬탄하느니라." 대요설보살이 또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그 부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의 모든 분신불을 불러 팔금강좌에 앉히시고는 허공중의 칠보탑 문을 여셨다. 마침내 천만억 겁의 오랜 과거에 멸도하신 다보여래께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석가모니불의 거룩함과 〈법화경〉의 진리를 찬하면서 성중 앞에 나투셨다. 그때 다보불께서 탑 가운데 자리를 반 나누어 석가모니불께서 앉으시기를 권하셨다.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소서." '제11 견보탑품'의 이토록 극적인 이불병좌의 장면을 그린 벽화가 바로 통도사 영산전의 견보탑품도다.

일불승과 구원실성의 가르침

그럼 대체 보탑의 의미는 무엇일까? 〈법화경〉의 부처님 말씀 중에서 쉽게 믿기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보리수나무 아래서 무상정등각을 깨쳐 붓다가 된 일연의 서사가 모두 방편이라는 것이다.

"사리불아, 여래는 다만 일불승(一佛乘)만을 위하여 중생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다른 2승이나 3승은 없느니라. 과거의 여러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비유의 이야기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셨으니,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2500여 년 전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랜 영겁의 과거에 이미 당신이 성불하였다고 말씀하신다. 그 증거로 '제15 종지용출품', '제16 여래수량품'을 통해 입증한다. 범상치 않은 천만억 보살이 사바세계 땅속에서 나투어 부처님께 문안 인사를 올린다. 미륵보살을 비롯해서 법회의 성중 모두가 놀라며 의심을 갖는다. 여태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저분들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다. 그런데 사바세계 보살이라고? 붓다께선 깨달음을 얻은 지 겨우 40년 지나는데 대체 저 수많은 보살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신 것일까?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분들이라 한다면 그것은 다섯 살 아이가 100살 먹은 노인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신다. "선남자여, 내가 성불한 지는 40년이 아니라 실상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니라."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이다. 이미 영겁의 세월 전에 성불하여 저 천만억 보살들을 성불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바세계에서 80년 삶을 살다간 부처님의 열반도 중생의 일불승을 일깨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입멸하신 부처님께서 상주설법하신다고? 법화경에서 그 제법실상을 '견보탑품'을 통해 증명하신다. 바로 다보여래의 경이로운 상주증명을 통해 영원한 상주설법, 곧 구원실성(久遠實成)을 입증하신 것이다.

〈법화경〉의 핵심사상은 '제2 방편품'과 '제16 여래수량품'에 녹아 있다. '방편품'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일깨우는 '일불승' 사상이 녹아 있고, '여래수량품'에는 부처님의 본성인 '구원실성'을 밝혔다. 구원실성은 부처님의 영원한 상주불변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사바세계 출현은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 잠시 일대사인연으로 머문 방편일 뿐이다. 사실은 오랜 영겁의 과거에 이미 성불했으며,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에 드신 것도 방편으로서 진실은 시공을 초월하여 상주설법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런 부처님의 구원실성은 다보여래의 출현을 통해 증명된다. 다보불은 무한히 오래된 과거에 이미 멸도하여 사리탑 속에 봉안된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놀랍게도 다보탑의 사자좌에 상주하고 계시면서 〈법화경〉을 호념하며 그 진실의 증명으로 나투고 계셨기 때문이다. 수천억 겁 전에 입멸하신 줄 알았던 다보불께서도 구원실성으로 상주증명하고 계셨다. 그럼으로써 중생들을 성불의 한길인 일불승으로 이끌어 가신다.

따라서 칠보로 장엄한 다보탑의 출현은 〈법화경〉 사상의 정수를 시각적 변상으로 드러낸 것이며, 그 변상의 본질은 〈법화경〉 가르침의 핵심인 일불승과 구원실성, 그리고 신심 어린 〈법화경〉의 수지, 독송, 호념의 공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성불의 길을 찾거든 저 '견보탑품'도 아래에 가서 부처님 상주설법 하시는 〈법화경〉 소리 들으시라.



노재학 작가

부처님오신날 봉축 시즌 추천도서

묘선, 관음이 되다

경완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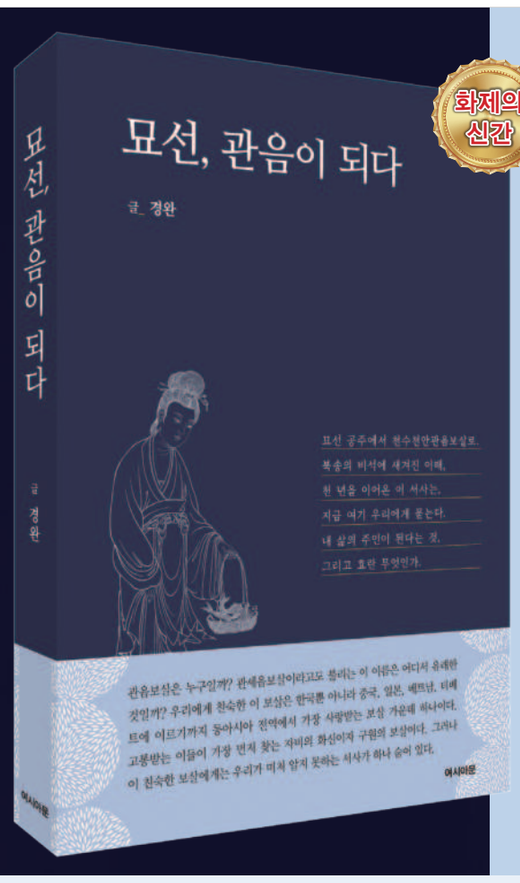
천 년이 서사,관음이 된 한 공주의 이야기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혼인을 거부하고 수행의 길을 택한 묘선.
자신을 죽이려 한 아버지를 위해
눈과 손을 내어준 극한의 자비.
그녀는 마침내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이 되었다.

「묘선, 관음이 되다」는
관음보살 여성화의 기원을 추적한
국내 최초의 본격 연구서입니다.





화제의 신간

왜 관음보살은 여성의 모습이 되었을까?

동아시아 관음신앙의 뿌리를 추적한
국내 최초 '묘선 공주' 본격 연구서

- ✓ 「향산대비보살전」 비문 국내 최초 완역 수록
- ✓ 묘선 서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한국어 단행본
- ✓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정묵 스님 추천
-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추천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중국 항산에서 시작된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_ 정묵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묘선 서사의 깊은 울림을 오늘의 독자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연구 성과다"
_ 주경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이 책의 다섯 가지 포인트

❶ 관음보살 여성화의 서사적 변용을 추적하다
❷ 묘선 서사를 빚어낸 세 갈래 뿌리를 풀다
❸ 여성, 구원의 대상에서 수행의 주체로
❹ 효(孝)와 출가, 두 가치의 화쟁(和諍)을 읽다
❺ 「향산대비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하다

책 정보

저 자 경완 스님
규 격 변형국판(148*210)
발행일 2026년 5월 15일
페이지 296쪽 | 값 18,000원 | 출판사 여시아문
ISBN: 978-89-87067-53-7 (03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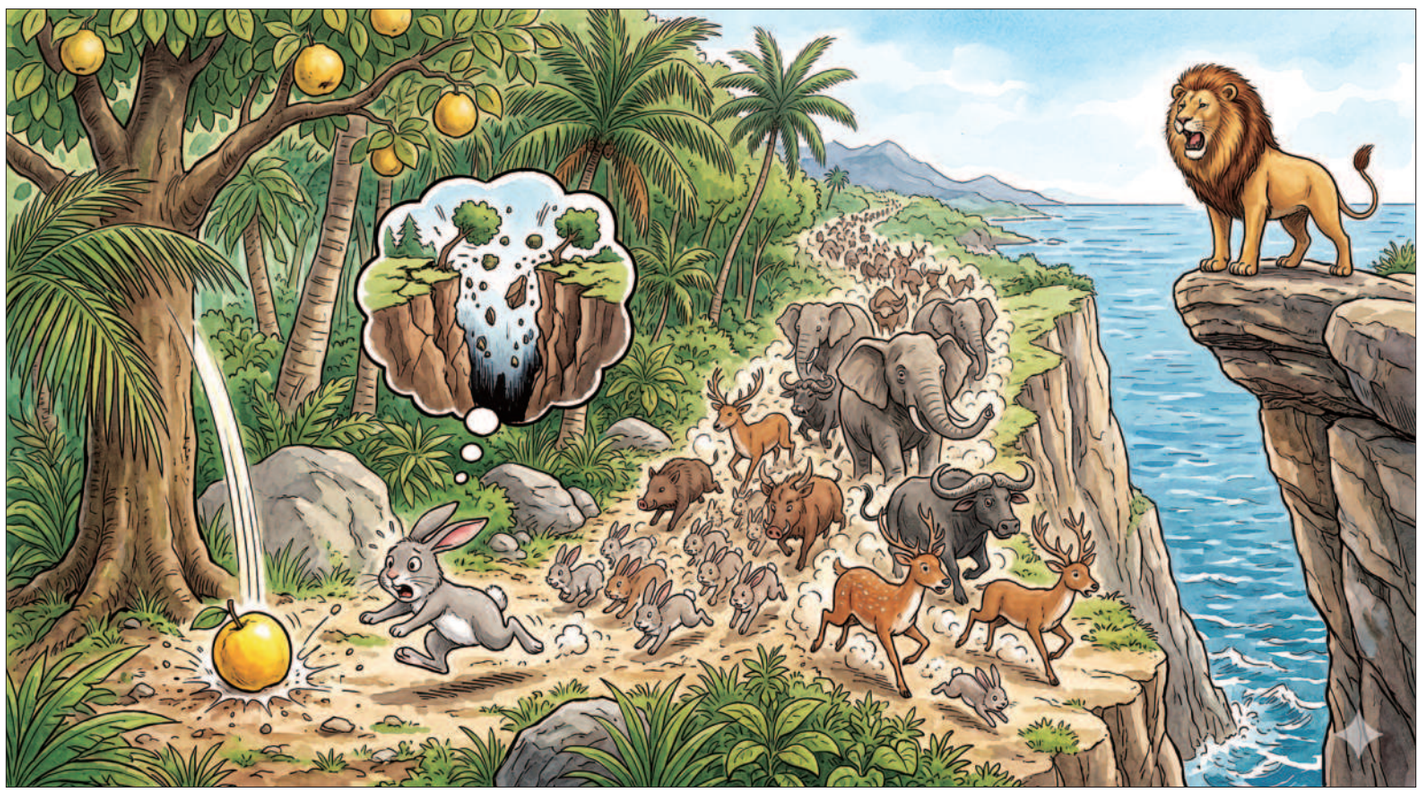
구입 문의 여시아문 ☎ 02-732-1520 www.mahamall.co.kr

관음의 자비가 당신의 삶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지가 무너진다고?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③ 맹목적 믿음 : '토끼의 맹신'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맹목적 믿음이 객관적 사실을 압도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서구 중세 사회에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은 가설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천동설은 종교적 신앙과 결부돼 그 어떤 반론도 허용되지 않았다.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 그야말로 무조건적 믿음 앞에서 과학이 무릎을 꿇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암흑의 시대였다.

어떤 믿음이 한번 굳어지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드러나도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아직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무명(無明), 즉 어리석음이라 한다. 무명이 한번 작동하면 웬만해서는 멈추기 어렵다. 오직 지혜의 불빛만이 이를 물리칠 수 있다. 마치 방 안에 불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명상이나 염불, 절 등은 무명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맹목적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불교 동화가 있다. 바로 '다다바 자타카(Daddabha-Jātaka)'에 나오는 토끼 이야기다. 다다바란 팔리어로 어떤 물건이나 과일이 떨어질 때 '쿵!', 혹은 '탁!' 하고 나는 소리를 가리킨다. 잘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토끼가 대지가 무너지는 줄 알고 큰 소동을 일으킨 이야기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 때의 일이다. 외도들이 고행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저들이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지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자기 몸을 괴롭히면 업(業)이 모두 소멸한다는 헛된 믿음을 지적하면서, 지혜로운 사자 덕분에 동물들이 목숨을 구한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 서쪽 바다 근처 종려나무 숲에 겁이 많은 토끼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토끼는 벨루바(beluva, 모과) 나무 아래 누워서 '만약 이 땅이 무너지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벨루바 열매가 종려나무 잎에 '쿵!' 하고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다. 토끼는 정말로 땅이 무너진 줄 알고 사력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를 본 다른 토끼들이 왜 그렇게 달아나는지 물어보자, 그는 대지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 소리를 들은 다른 토끼들 역시 겁에 질려 뛰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숲속은 수천 마리의 토끼들이 떼를 지어 질주하는 경주장이 되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본 사슴들이 왜 그렇게 뛰느냐고 묻자, 토끼들은 그저 땅이 무너진다고 소리칠 뿐이었다. 이에 사슴들도 대열에 합류해서 뛰기 시작했고 멧돼지, 고라니, 물소, 그리고 거대한 코끼리까지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달렸다. 그런데 길 끝에는 거대한 절벽과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대로 간다면 모두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때 밀림의 왕 사자가 산 정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사자는 포효를 하면서 그들의 행렬을 가로막았다. 사자의 위엄에 압도당한 동물들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섰다.

"너희들, 왜 그렇게 도망치고 있느냐?"

사자의 물음에 코끼리는 그저 땅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땅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느냐고 사자가 다시 묻자, 코끼리는 물소에게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물소는 고라니에게, 고라니는 멧돼지에게, 멧돼지는 토끼에게 들었다는 답이 이어졌다. 사자가 토끼에게 정말 땅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냐고 묻자, 토끼는 나무 밑에서 분명 땅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답했다.

사자는 동물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고 토끼와 함께 소리가 났다는 숲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땅이 갈라진 흔적은 없고 종려나무 잎에 떨어진 벨루바 열매만 보일 뿐이었다. 상황을 모두 파악한 사자는 동물들에게 땅이 무너진 것이 아니니 모두 돌아가라고 말했다. 지혜로운 사자 덕분에 동물들은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맹목적 믿음의 위험 보이는 불교 동화
'쿵' 과일 소리에 땅 무너진 줄 안 토끼
토끼 말만 믿고 이어진 동물들의 질주
터무니없는 믿음의 원인은 무지(無知)
색 비우고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얻길

부처님은 전생의 토끼들이 지금 고행하고 있는 어리석은 수행자이며, 지혜로운 사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마쳤다.

믿는다고 사실이 되지 않는다

숲속에서 일대 소동을 벌인 토끼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전래동화 '호랑이와 곶감'이 떠올랐다. 동물들이 토끼의 말만 듣고 지구가 무너진다고 믿은 것이나, 호랑이가 아이와 엄마가 나누는 이야기만 듣고 곶감이 자신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믿은 것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동화 속 동물이나 호랑이 모두 남에게 들은 것을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무조건 믿었다는 점이다. 오직 지혜로운 사자만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잘못된 믿음을 지적했을 뿐이다.

이런 일들은 현실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예컨대 1923년 일본 관동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를 저지른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 믿은 일본인들은 극도로 흥분해서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하기에 이르렀다. 맹목적인 믿음이 지진이라는 공포, 가짜 뉴스와 결합해 집단 광기를 일으킨 것이다. 군중심리와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무조건 질주했던 동화 속 동물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시 그들을 멈춰 세운 지혜로운 사자가 일본에 있었다면, 수천 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하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믿음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믿음과 앎에 대한 무지(無知)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믿음이란 세계에 대해 옳다고 받아들이는 해석이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분명 옳거나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우리는 여기에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앎(Knowing), 즉 지식이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이처럼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거나 그것이 사실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불완전한 믿음이나 가설에 머무르게 된다. 예컨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앎이라고 할 수 없다. 신이 존재한다거나 전생이나 내세가 있다는 종교적 언명 또한 분명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완전한 믿음에 해당한다. 맹목적 신앙이 난무하고 있는 오늘날 자신이 왜 종교를 믿는지, 그것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인지 성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대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귀납법(歸納法)을 창시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귀납법이란 구체적인 사실이나 경험에서 보편적 원리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그는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는 연역법이 충분한 실험과 관찰을 거치지 않으면, 몇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컨은 이를 가리켜 '우상'이라고 했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설, 종교적 권위에 의지한 맹목적 믿음 역시 그에게는 우상일 뿐이었다.

자타카에 등장하는 토끼와 동물들은 베이컨이 지적한 우상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대지가 무너진다고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지,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다. 토끼의 무지와 공포가 과일 떨어지는 소리와 만나 지구가 멸망한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자유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는 없는 법이다. 온갖 가짜 뉴스가 난무하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오늘날 더욱 새겨야 할 대목이다.

부처님 역시 자신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무척 경계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옳은지, 그것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성찰한 후에 공감이 되면 믿으라는 뜻이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며, 이럴 때 비로소 삶을 질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맹목적 믿음에 매우 취약하다. 요즘처럼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진실이라고 믿는다. 설령 그 뉴스가 잘못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보고 싶은 대로만 보기 때문이다.

맹목적 믿음을 불교에서는 '색(色)'이라는 한 글자로 압축해서 설명한다. 한마디로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믿는다고 해서 옳거나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색깔[色]을 텅 비우는[空] 색즉시공(色卽是空)을 〈반야심경〉에서는 강조한다. 불교 동화를 통해 이런 사유와 성찰이 깊어지고 사자와 같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如實知見] 지혜를 얻으면 좋겠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무조건 죽지 않는다면 죽은 세상을 어떻게 맛볼 것인가

여러분을 만나뵌 지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12일 만에 왔는데도 이번에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첫째는 이 세상을 바로잡아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고, 또 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서 모두 자유스럽게 끄달리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요다음에 뚜껑만 열면 은 승(僧)으로서 이 세상을 감당하리만큼, 아마도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모습을 하면서, 행도 중용을 하면서…. 아마도 저 깊은 바다가 흘러 도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고 남이 없이 용을 하는 것은 바로 법신 문수의 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푸르른 저 청정한 산과 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승가의 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모두 둘이냐 하면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푸르름은 절로 푸르르고, 꽃 핀 거는 꽃 핀 것이고, 물 흐르는 것은 물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아집과 아상을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이런 위치에서 이런 학위를 땄고 하나도 아쉬움이 없는 대업을 하고 있고, 내 가정이 돈이 없어서 질질 매지도 않는데 내가 뭐 배울 게 있나.' 이러지마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가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면 바로 쭉정이를 낳는 벼 이삭과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실천에 옮길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사람이 돼 가지고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여러분은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지금도 역시 과거를 현재에 가져왔고 미래는 현재에 가져왔으니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가고 오고, 죽고 살고, 먹고 똥 누고 일하고, 앉고 서고 자고 하는 것이 전부 참선이라고 그전부터 얘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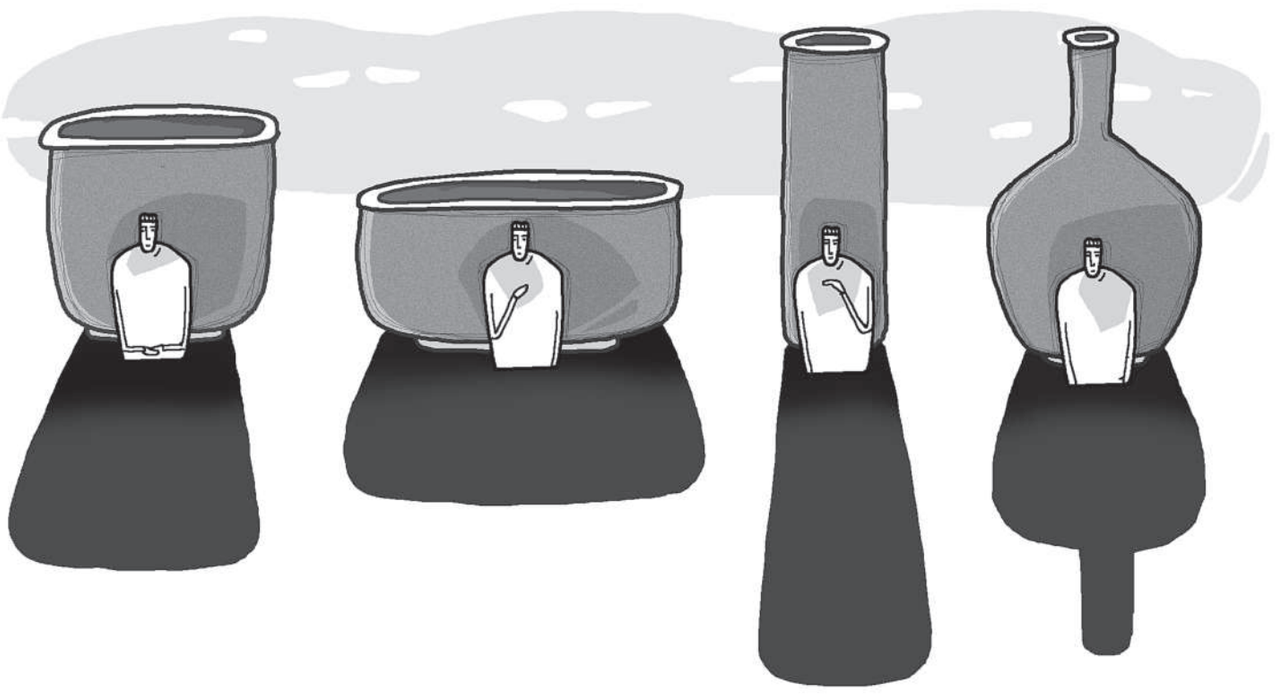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게 뭐냐. 왜 참선이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 만법이라 하면은 일체 만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해서 결정지으면서 그 행을 하면서 들이고 내는 것이 어떤 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것도 답답하지 않은 것도 전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사람도 답답한 마음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답답하지 않은 마음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또는 즐겁게 생각하는 것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일체 만법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조작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도깨비장난을 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법신이 되고 보살이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 열두 시에 내려와서 여러분을 접할 때 어떤 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마는 내가 만약에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했더라면 내가 답답할 일도 하나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내 고통이요, 내 몸이요, 내 모습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믿음이 상실되고 내 마음속의 그 믿음이 여지없이 흩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러분을 여러분 자체 내에서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물질세계의 50%만 보고선 항상 바람에 날림과 같이 노예가 돼서 이리저리 끌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나왔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말에 속고 또는 남의 행을 보고선 거기에 쏠리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 보니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처의 참자기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었죠.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시여!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자비하신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했습니다. 스무 살 안쪽이죠. 그런데 그때 '색경을 봐라. 거기에 있느니라.' 색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못생긴 내 얼굴만 보이지 도대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부와 자가 상봉을 하고도, 내가 경을 봤습니까, 설법을 들었습니까? 그랬으니 그걸 모를 수밖에.

그렇게 자비하고 그렇게 같이하면서도 볼 수 없었으니 그 모습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렇게 자비한데 당신은 모습이 없고, 모습을 안 보이십니까?' 흠,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색경을 봐라. 네가 손을 쳐들면 거기서도 손을 쳐들고, 네가 찌푸리면 거기서도 찌푸리고, 네가 울면 거기서도 눈물을 흘리느니라. 네가 마음이 괴롭고 언짢으면, 그리고 고독하면 바로 나도 역시 마찬가지니라. 네 그릇이 크다면 나도 클 것이고, 네 그릇이 작다면 나도 작을 것이다. 네가 울면 나도 같이 따라 우는 것이고 내가 울면 네가 같이 따라 우는 것이니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듣고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도 몸이 고달프다는 생각도 없었고, 못 먹었다는 생각도 없었고, 괴롭다는 생각도 없고, 나 홀로라고 생각을 한 예도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았어도, 여러분과 같이 내가 여기 높이 앉았다고 해서 높이 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저렇게 위에 높이 있다고 해서 높이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항상 자비를 베푸시면서 찰나찰나 들고 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라만상의 그 여러 중생들, 이 세상의 보이는 중생, 이 세상의 보이지 않는 중생들을 다 거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대로 미꾸라지처럼 말입니다, 요리 빼끗 조리 빼끗,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물질에 젖고 너무 말수단에 젖고, 너무 배워서 아는 게 많아서 젖고, 습에 젖어서 그렇게 벗어나질 못하고 떳떳하게 설 수가 없는 그런 이치가 아주 많이 보입니다.

무조건 죽지 않는다면 죽은 세상을 어떻게 맛볼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아주 죽는다면, 반쯤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죽는다면 생산이 될 것입니다. 아주 죽는다면 다시 태어날 것이고 아주 죽지 못한다면 고생을 길게 하고 길게 아마 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서 팔자를 만들고 운명을 만든다

☞ 19면에서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판이다 사판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둘이 아닌 까닭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판사판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것인데 살면 얼마나 더 살 양으로 그렇게 애를 써야 하죠? 몸으로 죽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마음이 죽는다면 몸도 항상 고개가 숙여지고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해 줄 수 있고, 남들을 이익하게 해 줄 수 있고, 일체 만법에 걸림이 없이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이가 알면은 얼마나 알아?' 하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죠. '저 스님은 비구니인데, 뭐.' 이렇게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차원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풀 한 포기도 불교가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으리만큼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의 그 모든 생명들이, 바람과 물과 흙과 불과 산천초목의 나무 한 잎사귀도 불교 아닌 게 없거늘 어찌 사람이 돼서 비구닌데 모자라고 비구닌데 잘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하다못해 돌 하나 굴러가는 걸 봐도 또는 발부리가 차여서 발이 짜개져도 이것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바로 증득할 것입니다.

돌도 생명이 있어서 돌아가고 지금 이 법상도 생명이 있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상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 놨을까요? 그러니 하나하나가 생명이 있어서 하나하나가 이심전심으로 돌아가고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에 따라 어김없이 끄달리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항상 하는 말이 우습지도 않고 딱딱하기만 하겠죠. 그러나 딱딱한 것은 바로 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재미있게 웃기기나 하고 과거 얘기나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실망하실는지, 여러분은 웃고 즐기고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속의 여러분은 아마 실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눈뜨고 눈 감고, 일어나고 앉고 서고, 생활하는 일체 만법을 바로 여러분이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내 주인공이 이렇게 하고 있지. 그 주인공이 무엇인고?' 하고, 그, '하는 놈이 무엇인고?' 하기 이전에 그놈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이 밝은 세상에 '그놈이 뭣고?', '모두를 이렇게 들이고 내고 있는 놈이 무엇일꼬?' 하기 이전에 '바로 그놈이 하는 것이구나.' 하고 뛰어넘어야 되겠죠. 3학년까지 공부를 잘하다가 너무 잘하니깐 4학년을 뛰어넘어서 공부를 해도 능히 하더랍니다.

그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생전에 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감을 알고, 들은 사이 없이 듣는 걸 알고, 말하는 사이 없이 말하는 걸 알고, 책을 보되 보지 않는 걸 알고, 책이 나를 보지 않는 거를 알고 모든 거, 저 구름이 스스로서 오고 가는 걸 알고, 인간이 스스로서 생하고 멸하는 걸 알고, 이 모든 망상이 전부 망상이 아니라 네놈이 한다 하는 거를 모두 증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다음에 모습을 바꿔가지고 나올 때는 여지없이 중이 돼서, 중이라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중은 계·정·혜이러는데 계도 정에 들고 혜도 정에 들어서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중이 돼서 이 소임을 맡든 저 소임을 맡든 수천수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대장부로서 이 세상을 주름잡을 때 비로소 우리 국가의 역사는 거대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중이라는 것은 머리만 깎고 옷만 입었다고 해서 중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산천초목도 쳐다보고 이 가슴속에 흘리는 눈물이 저 한 방울의 피와 같이 바다를 모두 메울 수 있는 한 방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과 또는 일체제불의 마음이, 일체 조사의 마음이, 천백억화신의 마음이 다 한마음으로서 접근이 된다면 이끌어 가지 못할 게 없죠. 바로 여러분 마음 하나만이라도 접근이 돼야만이 그 모두가 접근이 되는 것이고 아주 여여하게 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알아주실 수도 있고 일체제불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고, 역대조사들의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는가 하면 천백억화신의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고, 이 산천초목도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 이 모든 마음들을, 바람의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의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고요.

본래 나쁜 것은 없습니다. 본래 물도 나쁜 것도 없이 사람의 마음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독이 들고 살아가면서 선인의 일을 하고 그러죠. 팔자 운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서 팔자를 만들고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오면서도 그랬습니다. "얘야!"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스님더러 그랬습니다. "저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게 보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 안 보이긴 하나 돌아가는 건 알지?"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요. 그 돌아가는 데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식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돌아간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모두.

그런데 그 돌아가는 불바퀴, 여러분의 불바퀴에 어떠한 요건의 문제도,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맡겨 놓으면 그냥 녹아 버립니다. 그냥 장난삼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 과학자들은 아주 여자도 불문에 붙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산다 합디다, 그 연구하느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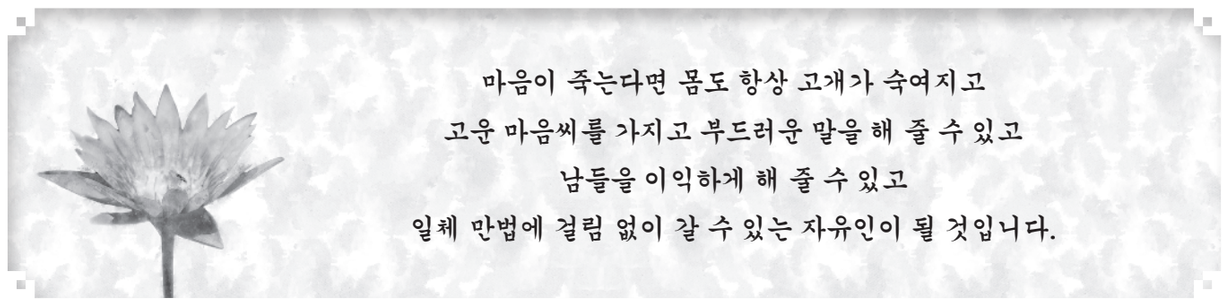
그렇듯이, 보세요! 모든 것은 보이지는 않으나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진실하게 '너만이 이것을 녹일 수가 있다.' 하고 진실히 믿는다면, 믿는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반면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을 하고 그런다면 두려울 게 없죠. 또 남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정의로써 아주 진실하게 말을 하되 남이 언짢다 하면 거짓으로 해서라도 이 사람이 이익하다면 거짓을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융통성 있는 지혜라고 보는 것이죠. 모든 게, 사람 사는 것이 가슴이 넓어야 하고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못생겼든 잘생겼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닿기만 하면, 그 프로펠러에 닿기만 하면, 그게 불바퀴라고 한다면, 닿기만 하면 그냥그냥 갈아져 버리고 부숴져 버리고 녹아 버리고 타 버리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참 여러분이 홀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분에 한해서는 또 '내가 이만하면 깨달았지.'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깨달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망상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깨달았다고, 나를 발견했다면 겨우 땅속에서 씨가 나와서, 겨우 싹이 한들한들하면서 나오는 격입니다. 그것이 다 길러져서 이 세상에 모두 이심전심으로 둘이 아니게 조화를 이루고 돌아갈 때 그때에 바로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도 깨달았다고 말은 못 합니다. 열매가 맺어서 온 누리를 두루 하면서 씨가 앉아서 무르익었을 때, 그 씨를 심어서 세세생생에 끝 간 데 없이 먹일 수가 있는 그런 실과가 돼야 하고, 남들이 그 익은 실과를 갖다 먹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영원히 그 실과 하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점, 바로 이름해서 구경경지에 이르러서 과거 삼, 현재 삼· 미래 삼을 통달해서 인간이 제대로 돼야만이 자유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여기 다니신 지 여러 해가 되는 분들도 많고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한마디 질문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여직껏 공부한 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만이 잘해 나가는 건지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신도1(여) 스님들도 계시고 많은 보살님도 계신데 나이 어린 제가 나와서 떨리기가 한이 없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니다.

큰스님 그냥?

신도1(여) 예, 그냥. 맞았습니까?

큰스님 맞긴 뭘 맞어? (대중 웃음)

신도1(여) 맞는 것도 놓는 것도 그냥입니다. 그냥입니다.

큰스님 그냥…. 그래, 그냥 그냥이야. 그냥 해도 안 되고 그냥 그냥이야. 그대로 해 봐. 그대로 잘해 나가.

신도1(여) 감사합니다, 스님. 하해와 같습니다.

큰스님 또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데 어떻게 해야 잘해 나가는 겁니까? 다 사람은 차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테니깐요.

질문자1(남)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그렇게 하십시오. 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자1(남) 예, 바로 그건데, 어떤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요. 조금 전에 보살님이 그냥 한다고 그랬는데….

큰스님 그거는 댁에서 모르는 일입니다.

질문자1(남) 예,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거는 물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댁한테 지금 하고 싶은 공부를, 어떻게 마음의 공부를 해야 잘하는 건지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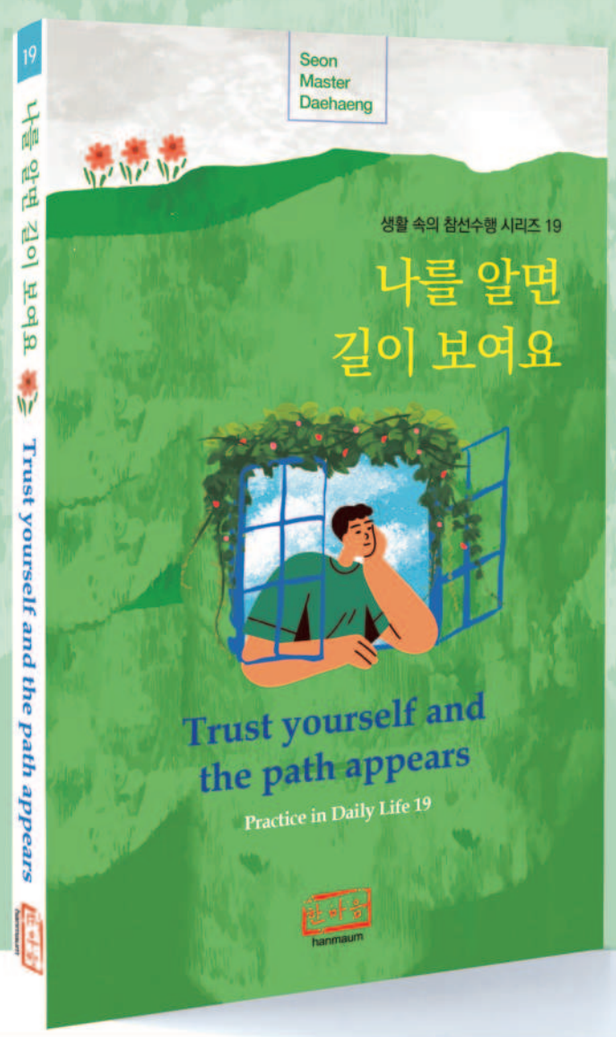
질문자1(남) 그런데 마음의 공부, 저는 여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제 가슴에 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큰스님 그러면 열심히 모든 것을 내 앞에 닥치는 대로, 아까 얘기했죠. 불바퀴에 맡겨 놓으면 부서지고 타고 시신도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깐 과거의 업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인과성이라든가 그런 게 무조건 바로 타 버린다고요. 녹아 없어진다고요. 그러니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6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⑩ '참는 것이 미덕' 아닌 진짜 내 감정 만나기

"무조건 먼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억울함으로 얼룩진 세월

상담실을 찾아오신 김상담 어르신(가명·75세)은 단정한 옷차림과 다부진 인상이었지만, 말씀을 나누는 내내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8남매 중 다섯째 딸로 태어나 오빠들과 달리 초등학교만 졸업해야 했던 어르신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오빠의 뒷바라지를 위해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양장점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시댁 식구들을 부양하고 집까지 마련했음에도 되돌아온 것은 가혹한 시집살이였습니다. 어르신은 과거 시어머니에게 맞고 남편과의 관계도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통행금지 시간에 맨발로 친정집으로 도망쳐야 했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체중이 20kg이 줄어들 정도였지만, 어르신은 남편에게 불만 한마디 내뱉지 않고 홀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지내왔습니다. 훗날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며 가정을 안정시켰으나, 남편마저 여행 중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어르신은 마음 둘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미안해야 했던 슬픔

현재 어르신은 해외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를 위해 본인이 마련한 대형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 그리고 중학교 손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제사 준비 문제로 손주와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손주를 훈육하려던 어르신에게 손주는 도리어 발길질을 여러 차례 가했고, 며느리의 만류에도 이어진 상황에 큰 상처를 받은 어르신은 집을 나와 여동생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나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와 손주에게 다가가 도리어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손주의 행동이 괘씸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음에도, 당장 이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을 빨리 덮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의 감정을 또다시 깊이 억누르고 만 것입니다.

'반동형성' 방어기제와 신체화 증상

이러한 어르신의 대처 방식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이라는 방어기제입니다. 내면의 불안과 분노를 직면하기 어려울 때, 오히려 겉으로는 정반대로 좋은 척하거나 굽히고 들어가며 상황을 급하게 무마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수용받고 위로받은 경험이 부족했기에,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무조건 억누르는 방식을 택해오신 것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나만 참으면 다 해결된다"는 신념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불안하고 화가 나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겉으로는 좋은 척, 미안한 척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해 버리는 '반동형성'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해 오신 것이죠. 하지만 담

갈등 상황 무마하려 자신의 감정 억압
'반동형성' 방어기제를 통해 마음 성찰
자기 호흡 관찰하며 내면의 감각 회복

기만 했던 감정의 크기는 결코 줄어들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몸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약물에 의존하게 됐고, 신경을 쓸 때마다 입이 마르고 염증이 재발하는 등 고통스러운 신체화 증상을 겪게 됐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는 데 어려워하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결여되면서 '감정표현 불능증' 상태가 몸의 병을 더욱 키우게 됐습니다.

치유의 첫걸음, 호흡하기

수십 년간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온 어르신에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전달하기'라는 장기적인 상담 목표는 다소 막연하게 다가와 상담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감정과 연결된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화가 나고 불안할 때 숨이 어떻게 가빠지는지 가만히 '호흡을 관찰'하며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단지 일상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내가 지금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지 아니면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지 자신의 호흡 상태를 가만히 살피며 현재의 기분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가빠진 숨을 느끼며 나의 현재 기분을 있는 그대로 인지해보는 과정은 억눌린 분노와 슬픔을 안전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맑은 거울처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추기

어르신은 지난 30년간 부처님을 따르며 신행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교의 지혜는 무조건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인내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수행의 핵심을 담은 〈대념처경(大念處經)〉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챙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성냄이 일어날 때 성냄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우울함이 일어날 때 우울함이 있다고 꿰뚫어 알라"며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덧나지만, 있는 그대로 알아주면 본래의 자리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앞에 놓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내듯, 내 안에 화가 일어날 때는 '아, 내 안에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슬픔이 일어날 때는 '내가 지금 몹시 슬프고 당황스럽구나' 하고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만 참으면 돼"라는 낡은 방어기제를 조용히 내려놓고, 덮어두었던 내 감정과 마주 앉아 눈을 맞추는 그 알아차림의 순간이 바로 진정한 마음 치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건강 365

⑬ 전이성 전립선암의 치료

항암 치료 넘어 전신 관리 병행해야

전립선암은 전 세계적으로 남성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이며, 서구에서는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남성암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의 증가세는 뚜렷하다.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전체 남성암의 15.0%를 차지하며 발생률 1위를 기록해, 처음으로 폐암(14.5%)을 앞질렀다.

1999년만 하더라도 남성암 발생 순위 9위에 머물렀던 전립선암은 인구 고령화, 식생활의 서구화, 그리고 PSA(Prostate-Specific Antigen) 검사의 보급에 힘입어 지난 수십 년간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이러한 역학적 변화는 전립선암, 특히 진행성 및 전이성 전립선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근거 중심적인 치료 전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립선암은 크게 국소성 전립선암과 전이성 전립선암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신치료의 관점에서 전이성 전립선암은 다시 호르몬감수성 전립선암과 거세저항성 전립선암(Castr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으로 구분된다. 전립선암은 남성호르몬(Androgen)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남성호르몬 박탈치료(Androgen Deprivation Therapy, ADT)는 여전히 치료의 근간이다.

최근 10여 년간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는 많은 발전을 이뤘다. 기존의 ADT와 Docetaxel 기반 항암 화학요법에 더해, Abiraterone, Enzalutamide, Apalutamide, Darolutamide와 같은 안드로겐 수용체 표적치료제(Androgen Receptor-Targeted Agents, ARTA)가 전이성 거세감수성 전립선암(metastatic Castration-Sensitive Prostate Cancer, mCSPC) 단계부터 유의한 생존 이득을 입증하면서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이제 ADT와 ARTA의 병용요법은 표준치료로 자리 잡았으며, 고부담(High-Volume Disease) 환자군에서는 여기에 도세탁셀을 추가하는 3제 병용요법(Triplet therapy)이 추가적인 생존 향상을 보여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확립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암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에 기반한 바이오마커 중심의 정밀의료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PARP 억제제는 BRCA1/2를 포함한 동형재조합 복구(Homologous Recombination Repair, HRR) 유전자 변이를 가진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환자에서 뚜렷한 치료 효과를 보이며, 치료 선택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 1위 암
전이성 4기라도 5~10년 생존 기대
치료 위해 포괄적 전신 관리 병행 要

이에 따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을 통한 생식세포 및 체세포 유전자 변이 검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평가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Lutetium Lu 177 vipivotide tetraxetan (177Lu-PSMA-617)은 PSMA 양성 mCRPC 환자에서 생존 기간 연장을 입증하며 방사성핵종치료(RadioLigand Therapy)의 시대를 열었다. 더불어 PSMA PET/CT와 같은 정밀 핵의학 영상기법은 진단과 병기 설정을 넘어, 환자 맞춤형 치료 선택과 반응 평가까지 연결되는 theranostics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치료 옵션의 비약적인 발전과 비교적 완만한 질병 경과의 특성으로 인해, 전이성 4기 전립선암이라 하더라도 일부 환자에서는 5년 이상, 경우에 따라 10년에 가까운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치료의 또 다른 축이 있다. 바로 보존적 치료(Supportive Care)이다.

전립선암의 기본 치료인 ADT는 암을 억제하는 강력한 치료인 동시에, 근감소증(Sarcopenia), 대사증후군, 골다공증,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 증가와 같은 전신적인 부작용을 동반한다.

특히 전립선암 환자의 상당수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신 상태의 변화는 삶의 질뿐 아니라 장기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많은 전립선암 환자들은 암 자체보다 심혈관질환, 골절, 대사성 질환과 같은 동반질환으로 더 큰 건강 위협을 경험한다.

따라서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는 단순히 항암치료를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근력운동을 통한 근손실 예방, 체중 및 대사 관리, 심혈관 위험인자 조절, 골건강 유지와 같은 포괄적인 전신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는 항암치료를 뒷받침하는 보조적 요소가 아니라, 치료 성적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순히 완치가 어려운 4기의 암이라고 좌절하거나 혹은 치료의 목표를 항종양 치료에만 국한하기보다는, 항종양 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이야말로 전립선암에서의 진정한 맞춤 치료(Personalized treatment)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권오
동국대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우리 복지관은 지금 11. 구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저소득 어르신들에 무료 아침 식사 제공



수락노인종합복지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50명에게 무료 조식을 제공하고 있다.

구립 수락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 노인복지관 중 가장 먼저 문을 여는 복지관이다.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하는 식당 직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어르신들을 위해 밥을 짓는다. 하루를 시작하는 한 끼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고 누군가에게는 안부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

2023년 7월 7일 개관한 복지관은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과 결식 예방을 위해 같은 해 8월 1일부터 무료 조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어르신 대상의 무료 급식은 다른 복지관과 다양한 민간 기관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점심 식사만 제공하고 있어 어르신 대상 무료 조식 제공 사례는 서울시 복지관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현재 복지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오전 8시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무료 조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른 시간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경제적 어려움·건강상의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어르신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함으로써 노년기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의 경우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규칙적인 아침 식사 지원은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료 조식 사업은 단순히 한 끼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침 시간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은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안부를 나누고 서로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시간을 보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규칙적인 외부 활동과 식사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

이용 어르신들은 "혼자 있으면 아침을 자주 거르게 되는데 복지관 덕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게 됐다", "따뜻한 밥 한 끼로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다", "아침에 나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처럼 조식 사업은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관은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건강한 식사 문화 조성을 위해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 불교의 발우공양 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 스스로 실천 가능한 잔반 줄이는 법을 안내하고 줄어든 잔반량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적정량 배식과 잔반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환경 보호의 주체로 일상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친환경 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게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식생활 문제나 사회적 고립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어르신들 일상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따뜻한 한 끼와 안부를 나누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홍지현
구락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남산에서 묻는 마음의 안부 ⑤ 몸 풀며 마음 만나는 시간, RE:BONE 명상

본래 가벼움으로 돌아가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남산 충정사에서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명상 프로그램 '남산-숨, 쉼RE:BONE 명상' 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에 머물지 않는다. 몸의 움직임과 호흡, 감각 알아차림을 통해 일상에서 쌓인 긴장과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체험형 명상 프로그램이다.

'RE:BONE 명상'은 이름 그대로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굳어진 몸의 감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몸의 긴장은 마음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마음의 긴장은 다시 몸에 쌓인다.

특히 고관절과 허리, 요추는 신체의 중심이자 균형의 축으로, 오래된 피로와 감정적 긴장이 쉽게 머무는 부위다. 이 프로그램은 몸의 중심 부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알아차리며, 억지로 풀어내기보다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돕는다.

'RE:BONE 명상'은 몸과 마음을 따로 보지 않는다. 숨의 흐름과 몸의 움직임에 따라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참가자들은 바쁜 일상의 속도에서 잠시 내려와 자신의 호흡과 감각을 느끼며, 몸에 쌓인 긴장과 마음의 반응을 차분히 살펴본다. 또한 타이치 기반의 느리고 섬세한 움직임을 통해 허리에 쌓인 긴장과 불안을 탐색하고, 몸과 마음이 본래의 가벼움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경험한다.

몸 중심 다시 세우고 감각 회복에 중점
숨 흐름·몸 움직임 따른 마음 변화 관찰
몸 통해 자신 돌보는 조용한 쉼의 자리

프로그램을 이끄는 이지우 명상지도자는 몸을 "억지로 고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풀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본다. 그래서 수업은 운동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무리하지 않는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명상에 들어간다. 움직임은 명상이 되고, 명상은 다시 깊은 쉼으로 이어진다.

참가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참가자는 "명상이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몸을 움직이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잘 보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고관절을 풀었을 뿐인데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었다. 평소 내가 얼마나 몸을 긴장시키고 살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허리 명상에 참여한 참가자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수업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진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RE:BONE 명상'은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 상태와 감각에 보다 세심하게 다가갈 수 있다. 프로그램은 남산 충정사 1층 선명상실에서 진행되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조용한 쉼의 자리로 마련되고 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명상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는 일인지도 모른다. 숨을 느끼고 굳어진 관절을 풀며 몸의 중심을 알아차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돌보는 또 하나의 길을 배운다. 남산 충정사의 'RE:BONE' 명상은 몸을 통해 마음을 만나고 움직임을 통해 쉼을 회복하는 새로운 명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덕운 스님
서울 충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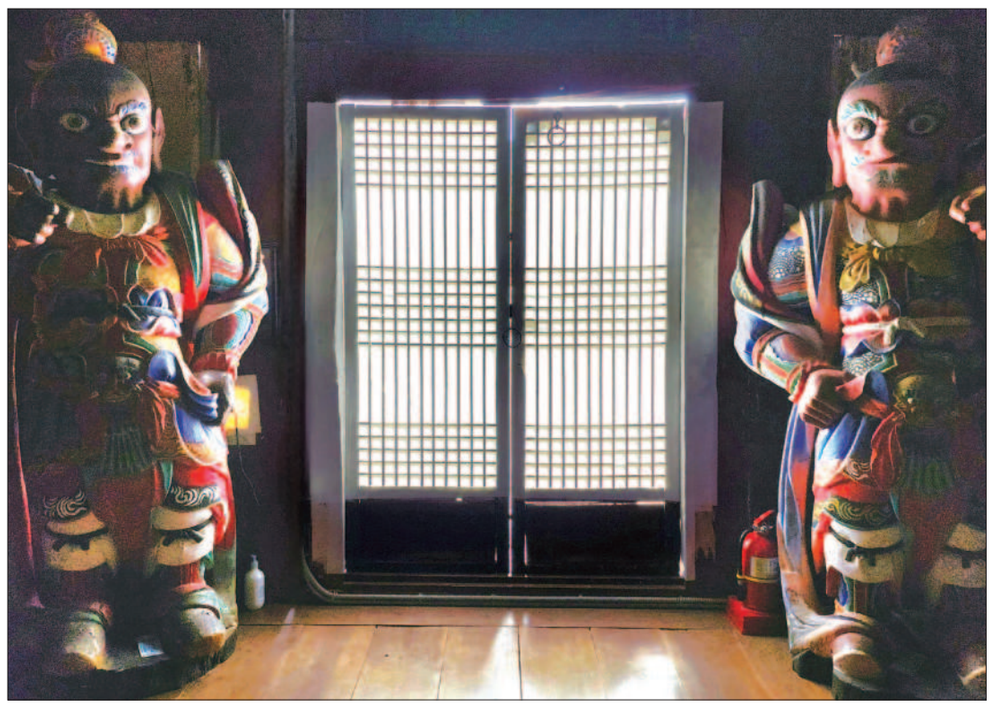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⑳ AI시대, 인간의 위엄

지금 세상은 'AI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는 것 같다. 돈에는 눈이 없다는데, AI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주식 시장을 선두로, 세상의 모든 돈이 그쪽으로 달려가는 듯하다. 마치 인류의 미래가 AI에 달려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런데도 사람들의 시선은 관망, 환호, 불안 사이에서 서성인다. 직업의 소멸 같은 생존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가 보지 않은 세상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양상이 다르다. 예측 가능한 미래와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간극 때문일 것이다. 누가 알까. 그 틈이 작은 균열일지,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거대한 크레바스가 될지. 아니면 친AI 계층과 아닌 계층, 둘로 갈라놓을지.

AI 즉 '인공 지능'으로 초래된 세상의 변화는 인간의 고유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더 정교해질 것을 요구한다. 언어, 논리, 추론 능력 등은 더 이상 '인간다움'의 표지가 아니다. 미래 예측은 인간이 AI에 의탁하는 형국이다. 과거의 대한 기억과 해석 능력 또한 AI는 주문자(인간)의 의도에 맞춰 줄 정도로 진화(?)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다움을, 인간의 위엄을 지킬 수 있을까.

실상사 명부전에서, 삶의 지평에 발을 딛고 '과거-현재-미래'를 조망하는 '인간'을 본다. 역사를 공업(共業)으로 인식하는 성찰적 인간. 현재의 선택 앞에서 망설이는 인간.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인간. 성찰, 망설임, 두려움을 빼고는 인간의 위엄을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AI시대에는 더욱.

손영자 작가



실상사 명부전.



스님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현불논단



설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대부분의 스님들은 큰스님들의 법문과 수행자의 삶에 감화돼 출가의 길을 선택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다는 서원을 품고 기본교육 기관에서 배우고 선원에서 정진하며 출가 생애의 초반기를 보낸다. 그러다 어느 시기가 되면 소임을 맡아 가람을 지키고 전법과 포교의 현장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수행과 소임이 어우러진 출가 생애의 중반기를 살아간다.

필자의 하루는 오전 4시에 시작돼 오후 7시쯤 일과가 끝난다. 이런저런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오후 9시가 돼서야 오롯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대다수 스님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찰은 대중에게 전법과 신행의 공간이지만, 스님들에게는 수행처이자 삶의 안식처다. 수행·포교 공간에서 온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세상은 이미 쉼의 가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주 5일 근무를 통해 삶의 균형을 찾고, 도시와 자연을 오가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다른 종교는 어떠한가. 원불교는 연구년과 휴식년, 정양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 현장 업무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연수·명상 등을 통해 포교 역량을 강화한다. 천주교 역시 일정 기간 사목 후 안식년과 연구년을 갖는다. 피정의 집이나 수도원에서 침묵과 기도, 독서와 상담 등을 통해 영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목 역량을 습득한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현실은 어떤가. 언젠가

사회 직장, 타종교서는 휴식 제도화
스님 휴식 위한 제도·공간 마련 필요
승가 쉼, 사찰 운영·포교 역량 도와

선배 스님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주 4일 근무가 시행되면 어느 요일에 쉬는 것이 좋겠느냐는 청취자 사연을 들었다. 방송을 들으며 문득 부러운 마음이 들어 '스님들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쉬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적었더니, 진행자 스님도 같은 의견이라며 공감했다.

스님들에게도 휴식은 필요하다. 고요히 쉬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수행력을 되살리는 시간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님들은 자신이 머무는 사찰에서 편히 쉬지 못한다. 도반 스님의 절이나 다른 공간을 찾아 겨우 숨을 돌린다.

일반인과 이웃 종교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사찰은 많지만, 정작 스님들이 머물며 회복·충전할 수 있는 장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불자 어르신들을 위한 웰다잉 교육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스님들의 품위 있는 회향과 생애 후반기 설계를 돕는 교육과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종단의 근간은 승가다. 스님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야 종단도 건강할 수 있다. 수행자의 품위를 유지하며 쉼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여법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스님들의 휴식은 멈춤을 통한 몸과 마음의 회복이며, 출가 당시의 발심을 떠올리며 삶을 점검하는 수행의 연장이다. 이러한 회복은 결국 안정적인 사찰 운영과 포교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건강한 승가는 건강한 종단을 만들고, 건강한 종단은 더 넓고 깊은 자비의 실천으로 사회에 응답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하루쯤 산문을 닫고 모든 대중이 각자의 자리에서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법계와 소임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 제도를 마련하고, 교구별로 재충전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수행공동체를 지키는 지혜일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와 공이 드러내는 가짜 현실

〈空〉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우리는 세상을 직접 경험하기보다 디지털 미디어가 재현한 프레임을 통해 현실을 인식한다. 문제는 이 재현물이 실재를 대체한다는 점이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계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특정 의도에 따라 가공되고 형성된 이미지에 불과하다.

이 이미지는 현실을 단순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을 조직하고 규정하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 뉴스는 사건을 선택·배열하고,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으로 특정 콘텐츠를 부각하며, 소셜미디어는 화려하게 편집된 장면만을 노출한다. 이 과정에서 현실은 축소·왜곡되지만, 우리는 이를 온전한 실재로 받아들인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암소를 건네는 풍습이 있었다. 보통은 한두 마리면 충분했다. 어느 날 추장의 아들이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청혼하며 뜻밖에 아홉 마리의 암소를 보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그는 답했다. "한 마리만 주면 그녀는 그만한 가치에 머물겠지만, 아홉 마리를 주면 그 이상의 가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미디어가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특정 인물은 반복적으로 왜곡돼 재현되고, 어떤 사건은 과장되거나 은폐된다. 민담 속 마을 사람들이 여인을 볼품없는 존재로 규정한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가 구축한 가상

디지털 미디어, 특정 의도로 가공·형성
가상 세계, 현실보다 강하게 판단 지배
공 이해, 가상-본질적 실재 간극을 자각

의 세계는 실제보다 더 강한 영향력으로 작동하며 우리의 판단을 지배한다. 이때 추장의 아들은 합의된 현실의 허구성을 간파하고, 아홉 마리의 암소를 통해 그 재현된 현실을 해체한다.

불교적 사유로서의 공(空)은 세상에 고정된 본질은 없으며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인 흐름일 뿐이라는 가르침이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가 보여주는 현실은 실체가 없는 가짜 실재이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되고 소비되는 이미지의 흐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허구를 실제로 오인함으로써 타인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스스로를 고정된 프레임에 묶어버린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공의 사유는 단순한 철학적 사색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실천적 인식론이다. 우리가 접하는 이미지와 정보가 어떻게 선택·구성됐는지,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개입해 있는지 성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심하는 눈을 갖는 것이며, 미디어가 재현한 가상과 본질적 실재 사이의 간극을 자각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미디어 시대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파편화된 정보가 아니라 깊이 있는 통찰이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계를 그대로 믿는 순간 우리는 구성된 현실 속에 갇히지만, 그 세계가 공함을 자각하는 순간 현실의 이면에 숨겨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끊임없이 가짜 현실을 복제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공의 시선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세계인가, 아니면 세계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기획된 하나의 장면인가."

社 說

태고종의 변화, 화합과 책임으로 증명해야

태고종이 오랜 내홍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사회 앞에 서고 있다.

한때 종단 내분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자격까지 박탈당하며 대외적 위상이 크게 추락했던 태고종이 최근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종단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변화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가 지향해야 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태고종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국민통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한 데 이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애도문을 발표했다.

부처님오신날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태고종 청련사를 찾아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태고종의 대외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부의 성찰에서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6월 10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는 의미가 남다르다. 전국 종도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태고종은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과 해동 율맥을 계승한 한국불교 정통종단임을 천명했다. 동시에 사회 교화에 앞장서 국민과 상생하는 대승 교화의 미래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가장 울림이 컸던 메시지는 정통성을 주장하는 선언문이 아니라 종정 운경 스님의 자성의 법어였다. 운경 스님은 "정통종단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법난의 책임을 모두 외부에 돌려서는 안 되며, 과거 종단 내부의 분열과 갈등 역시 오늘의 위상을 만든 원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인정했다.

특히 "첫째도 화합이고 둘째도 화합이며 셋째도 화합"이라는 당부는 무겁게 다가온다. 수행공동체의 분열은 신뢰를 잃게 하고, 신뢰를 잃은 종교는 사회를 이끌 수 없다. 정통성은 역사적 계승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법맥에 걸맞은 수행과 청정한 종풍, 시대적 책임을 실천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정통성이 된다.

사회 현안에 응답하는 행보 '주목'
신뢰와 교육 통한 종단 중흥 기대

태고종은 지금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문화유산 보존, 국제교류 확대, 청년 포교 등 다양한 종책을 추진하며 종단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종도들 역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종단 중흥을 향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가꾸고 열매를 맺는 일이다. 순간의 관심과 일회성 행사로는 종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제도 개선, 종책연구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화합이 지속될 때 변화는 비로소 종단의 체질이 된다.

태고종이 최근 보여준 공공선의 실천과 자성의 목소리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종풍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6월 17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 서경보 존자 30주기 추모다례재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6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일붕 서경보 존자 3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하오니 종도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70년(2026) 6월 1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천용사 약사여래대불 점안법회 봉행

대한불교삼론종은 6월 21일 오전 10시 서천 천용사에서 약사여래대불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종도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70년(2026) 6월 1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拂子

下心으로 예를 올리는 자리
수행의 기품을 완성합니다

청정수행의 표상이신
태덕 큰스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불자(拂子)는?
큰스님들께서 설법 또는 수행시 사용하는 법구(法具)로
마음속의 번뇌와 잡념을 털어내는 대표적인 법구입니다.


'조계종 대종사 품서식 공식 제품'

- 주문제작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종단 문양과 법명이 각인됩니다
- 불구(佛具)별 고급케이스로 포장됩니다
-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하몰! 010-8825-4367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